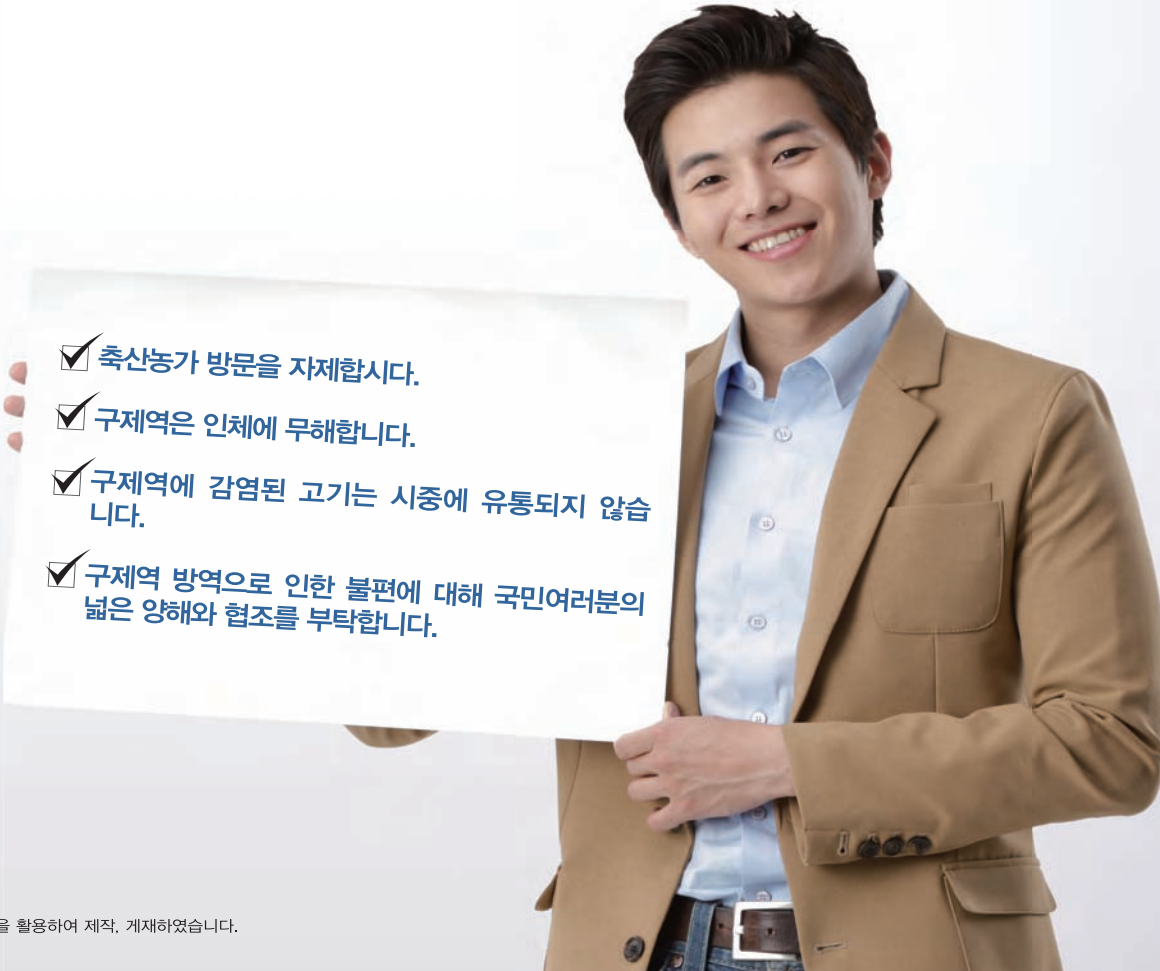
구제역, 모두가 힘을 모으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 가축전염병입니다.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하므로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구제역 극복에는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구제역 발생지역과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십시오.

축산농가는 농장 소독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 모임은 자제하고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단방역과 소독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 ✔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시다.
- ✔ 구제역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 ✔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습니다.
- ✔ 구제역 방역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 광고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을 활용하여 제작, 게재하였습니다.

경인년(庚寅年)에 꿈꾸는 신묘년(辛卯年) 꿈

사랑받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곧 있으면 새로운 꿈을 꾸는 새해 신묘년(辛卯年)입니다.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 꿈은 올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로 실현됐습니다. 오케스트라로 치면 저 끝에서 탬버린만 치던 대한민국이 마침내 지휘자로 발돋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진국으로 가야 할까요. 미국처럼 힘은 세도 사랑받지는 못하는 나라, 일본처럼 잘살아도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원하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문화적 저력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류(韓流)'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류(日流), 중류(中流)는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콘텐츠가 풍부합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교육열은 아이들을 르네상스적 인간(과학, 예술, 인문,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콘텐츠가 다양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역시 대단한 문자입니다. 자신의 언어에 맞는 문자를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은 사랑받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독일 친구들이 와서 제일 놀라는 것이 담배꽁초 하나 없는 깨끗한 서울 거리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같은 데에 가보면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고, 프랑스 파리 거리는 더럽기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나라 중 한 곳이 캐나다입니다. 적어도 미움 받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난민을 보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달려가는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로 꼽습니다. 인구는 적은데 자원은 풍부해서 돈도 많습니다. 게다가 베풀 줄 알고 끌어안을 줄 아는 나라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미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남북통일이 되면 인구 8천만명을 가진 대국이 됩니다. 이젠 '사랑받는 국가'를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은 자명합니다. 문제는 '어떠한 선진국이 될 것인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 아침 다 함께 생각해봐야 할 우리의 미래 모습입니다. G

이원복
덕성여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 만화가

Contents

Weekly
2010.12.29
No.91(통권 192호)

표지 이야기

2010년 신년호를 위풍당당한 백호로 시작했던 <위클리 공감> 표지들. 박태환의 금메달에 웃고 김연아의 눈물에 함께 울며, 천안함 피격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에 슬프고 놀랐던 지난 일 년의 모든 것을 담았다.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2.2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기 획 특 집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자리 만드는 성장경제"

백호의 포효로 문을 연 2010년의 끝자락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론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도 돌 수 있도록 노력하느라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2011년은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사회'를 화두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안전망과 고른 교육과 취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평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20

56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90호(12월 22일자) 기획특집 ‘국민 소통혁명’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소셜미디어 유용하지만 잘 활용해야”

“‘유행 넘어 일상화된 소통창구’를 읽어보니 정말 편리한 의사소통 도구가 많이 나와 소통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감탄할 정도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 경험, 정보 등을 타인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소셜미디어는 시공간을 초월해 사용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21세기 최대의 이기(利器)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선용해야지 악용하면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_장삼동

“기획특집에서 ‘양날의 검 잘 쓰고 계십니까’ 기사를 잘 봤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공이 혁혁합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 그대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지혜와 센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_황복희

“소셜미디어 이해하는 데 도움 됐어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소셜미디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홍보하는 창구로도 쓰이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_홍대욱

90호 ‘화제의 책 /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최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많은 국민들이 북한 관련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배후에 김정일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이 자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언론매체로만 알던 김정은이라는 존재에 대해 13년간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 씨의 증언이 담긴 책을 통해 알게 되니 흥미롭게 읽히더군요. 이 책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_민정원

90호 ‘중점기획 / 2011년 경제정책 방향’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경제가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지수는 높지 않은 듯합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자꾸 올라 시장에 가는 것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부디 2011년 새해에는 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통해 거시경제가 튼튼해졌으면 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발판으로 글로벌한 일류경제로 나아가고 그러면서도 서민의 주거, 의료, 복지를 챙기는 따뜻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를 기대합니다.”_nihao082

알립니다

‘복지로’ 캐릭터 이름을 지어주세요!

12월 13일 ‘복지로’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그동안 국가복지정보포털과 희망길잡이넷이 제공해온 정보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앞으로 복지나 민생 지원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국민이 복지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이름을 공모한다.
복지로 캐릭터는 복지 분야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요정 할아버지로 표현됐다. 이 캐릭터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부르기 쉽고 친근한 이름을 붙여주면 된다.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2011년 1월 7일까지
응모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참여광장 캐릭터 이름 공모전 통해 응모
당선자 발표 | 2011년 1월 12일
경품 내용 | 캐릭터 이름 당선자 1명에게 문화상품권(10만원), 이벤트 참여한 3백명 추첨해 기프트콘(5천원) 경품 수여
보건복지부 ☎ 02-2023-7180 mw.go.kr 복지로 bokjiro.go.kr

금융위원회 블로그 새 단장 이벤트

금융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금융위원회 블로그가 최근 새 단장을 마쳤다. 블로그와 금융위원회를 알리기 위해 12월 17일 출시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이벤트가 마련됐다.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2월 31일까지
참가 방법 | 스마트폰(아이폰 전용)에 금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금융 동향’을 내려받고 메인 스크린샷을 찍어 e메일(ysdong@udali.com)로 보낸다. 이후 블로그에 비밀 덧글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예 : 김금융 / 010-1234-5678).
당첨자 발표 | 2011년 1월 7일 블로그 내 이벤트 게시판 공지
경품 내용 | 디지털 카메라(1명), 문화상품권 1만원(10명), 보온병(10명)
금융위원회 ☎ 02-2156-9542 fsc.go.kr 블로그 blog.daum.net/blogfsc

공감♥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2011년 1월 5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지키고 보호함. 국토OO.
4. 바로 다음의 해. 내년.
5.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7.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은 육지에 이어진 땅. 한OO.
8. 지지 아니함. 실패하지 아니함.

세 로
1.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묶어 일컫는 말.
3. 친절한 마음씨. OO를 베풀다.
4. 두 가지 마음. 딴마음. 또는 OO전심.
6. 소나 돼지 같은 동물이 잘 걸리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병.
7. 청렴은 공직자의 윤리와 의무입니다. 따라서 청렴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뇌물, 청탁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막고 공정하고 적법한 활동이 되도록 하는 모든 방안과 대책을 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죠.

〈Weekly 공감〉 89호(12월 15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쇠(소)고기 **4** 부창부수 **5** 성금 **6** 배필 **8** 세이프가드
세로 **2** 기부금 **3** 화수분 **5** 성성이 **6** 배가 **7** 필드

〈Weekly 공감〉 90호(12월 22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기숙사 **3** 이미 **5** 소통 **7** 화엄 **9** 아랫목
세로 **1** 기후변화 **2** 사이 **4** 미소 **6** 통일 **8** 엄친아

〈Weekly 공감〉 89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회훈·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 1동 / **서용좌**·광주 서구 양동
양옥자·대구 수성구 지산2동 / **이윤미**·충북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장경연·경남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

〈Weekly 공감〉 90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월순·경기 군포시 번영로 / **김현주**·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박명숙·서울 양천구 신월2동 / **이성란**·서울 서대문구 홍제2동
한송희·대전 서구 둔산2동

미래의 정부는 'RT'의 시대에 적합해야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 '바람직한 미래 정부'

동아DB

정부는 꼭 필요한 조직입니다. 정부가 있어야 질서,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마다 역할이 달라서 정부가 커야 하느냐, 작아야 하느냐, 이 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는 어떻게 변할까요?

커즈와일이라는 학자는 2040년에 태어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백50개의 알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뇌는 6단계에 걸쳐 발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3단계쯤에 와 있습니다. 2040년 6단계에 이르면 인간의 지능은 더욱 발달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복잡해지고 정부는 더 힘이 들겠죠. 통제하기가 힘들테니까요.

그러면 미래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미래는 'RT(Relation Technology)'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RT란 관계 기술을 말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괄목할 만하게 변하고 발달하면서 미래사회를 지배하게 될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바로 RT가 아닌가 싶습니다. 맺어주고 조정하고 뒷받침해주는 역할이지요.

미래의 정부조직은 융합행정 운영방식을 지향하는 평면 네트워크 조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로봇과 함께 일하려면 계급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계급이 없어지면 평등조직, 더불어 사는 콜라주 형태가 될 것이며, 정부의 크기와 기능은 국가 발전을 위해 기본적인 것만 유지하도록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닫힌 정부에서 열린 정부로, 안방민원 전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윌슨 쿼털리(WILSON QUARTERLY)〉라는 미국 학술지는 30년 후에 정부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작은 정부, 큰 시장, 더 큰 국민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정부가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부 스스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변해야 바람직한 것인지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미래에 필요한 정부 모델이 하나쯤은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유은경 대전 중구 문화1동

1. 중점기획으로 다룬 '2011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기사들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뜻한 대로 잘 추진돼서 시장 바구니는 가득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비울 수 있는 신묘년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백성의 상소를 통해 하늘의 소리를 듣고자 했던 옛 군주의 모습처럼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은 고금불변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농어촌 어르신들이 알아두면 좋은 건강정보를 소개해주세요.

이명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1. '따뜻한 이웃' 코너의 '사랑의 화수분 희망쌀 퍼가세요'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격이 안 돼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딱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끼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 3백65일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의 선하고 따뜻한 기운이 전국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 유튜브에서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3천만 건이 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들어가 구경했습니다. 정말 소셜미디어의 힘은 위대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인 만큼 우수한 인력과 예술적 재능을 살려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녹색생활 실천 가이드를 연재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9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2011, 정부는 이렇게 일한다'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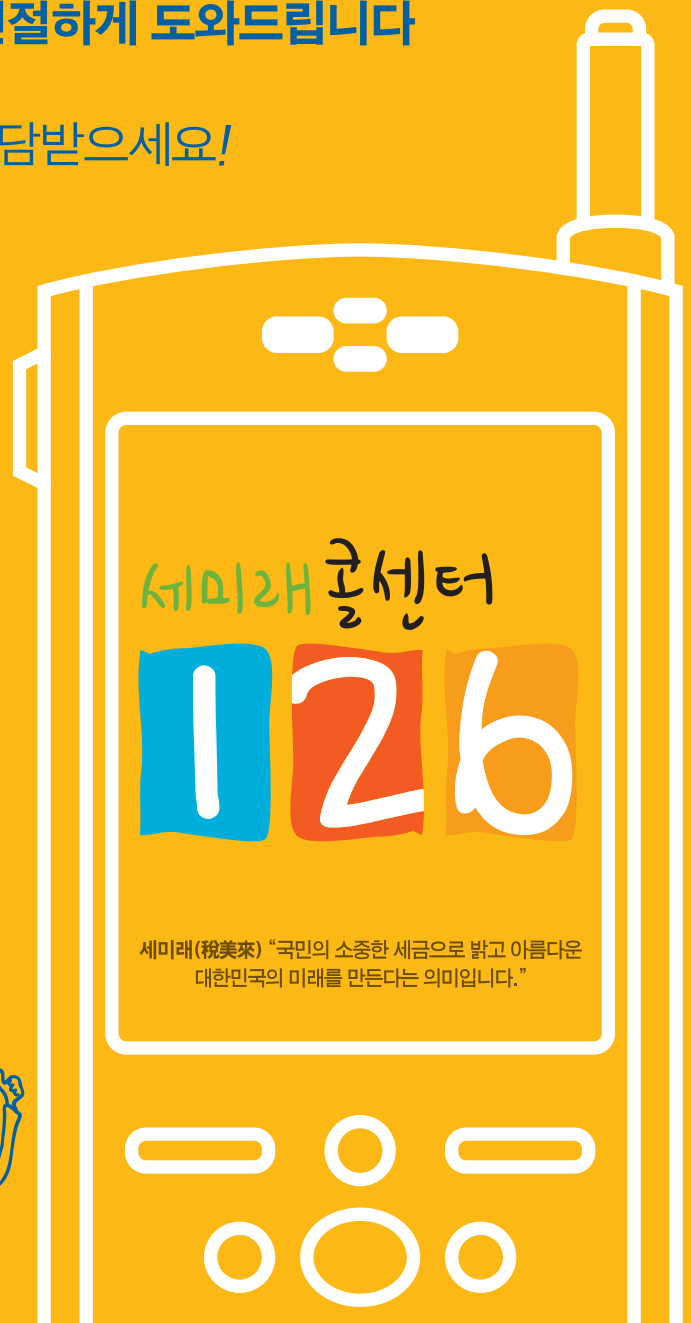
함께 만들어요! 대한민국세미래 稅美來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126 하세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세법상담에서 연말정산까지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상담시간

월~금 오전 9:00 ~ 오후 6:00
(탈세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

구제역 예방접종… 확산 방지 총력

파주·고양·연천 등 5개 시군에 우선 접종… 발생지역 방문 자제 당부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 북부, 강원 등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번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도록 제한적인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동아DB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적인 백신접종이 실시된다.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주 북구 충효동의 한 한우사육농가에서 북구청 축산유통팀 방역반원들이 축사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월 23일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 대해 기존의 매몰 처분과 병행하여 오염 정도가 심한 일부 지역에 대해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예방접종 대상지역은 우선 오염이 심해 2차 감염이 우려되는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등 5개 시군이다. 특히 오염이 심한 안동시의 경우 시 전체 지역, 나머지 시군은 발생농장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소 13만3천여 마리(7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링(Ring)' 방식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의 발생지역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구제역 양성 판정 가축의 경우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몰 처분하되, 확산 여부 등을 점검해 추가 접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농장의 우제류(偶蹄目·초식 포유류. 발가락 수가 2개 또는 4개로 발굽 가운데가 갈라져 있다) 가축만을 매몰 처분할 계획이다.

예방접종은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백 개 팀 8백여 명을 투입해 예방접종 개시 후 10일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예방접종이 추가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회와 협력해 민간 수의사 등 활용 가능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 후 구제역 발생 시 우제류 가축만 매몰 처분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약 공급을 위해 수의과학검역원이 보관하고 있는 30만 마리분의 예방약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영국(퍼브라이트 연구소) 항원뱅크에 비축하고 있는 1백20만 마리분의 예방약도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 구제역 발생 또는 마지막 예방접종 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동아DB

경북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되던 12월 8일 경남 밀양시는 고속도로 남밀양나들목에 차량용 소독장비를 설치해 밀양시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방역작업을 벌였다.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이는 매몰 처분하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마지막 구제역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요건이 생기는 데 비해 3개월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것이다.

가축에 예방접종을 한 뒤에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예방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확인될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농가 간 거래가 가능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방접종이나 이동통제로 인한 손실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보상할 계획이다. 항체 형성에 대한 검사는 마지막 예방접종 또는 구제역 최종 발생 2주 후부터 실시된다.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2주 소요)되기 이전에는 감염될 수 있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소독이나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www.nvrqs.go.kr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 1588-9060

구제역,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아요

1 구제역(FMD)은 발굽이 갈라진 동물의 가축 전염병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2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아요
구제역은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걸리는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또 말과 같이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동물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3 구제역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니 안심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 또 설사 구제역에 감염된 줄 모르는 상태에서 가축이 도축됐을 경우 예냉 과정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사멸된다. 고기가 예냉되면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져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자연 사멸(산도 6 이하 또는 9 이상에서 불활화)하기 때문이다. 또 구제역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파괴된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6도에서 30분, 76도에서 7초 가열하면 사멸한다.

4 치료약은 없지만 예방은 가능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5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는 먹어도 안전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는 사람이 먹어도 안전하다.

구제역 조기 종식 이것만은 지키자

1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2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를 방문할 때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소독 등으로 불편하실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해외에서 돌아오실 때는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6 귀국 후 72시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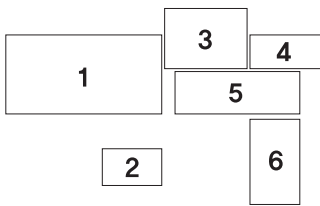
“평화 지키기 위해 반격은 강하게”

이 대통령 동부전선 최북단 찾아… 포천서 최대 규모 동계 합동훈련

“우리는 공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월 23일 칼바람이 부는 동부전선 최북단 육군 21사단을 찾아 경계작전태세를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 육군 21사단은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가칠봉(높이 1천2백40미터) 관측초소(OP)가 있는 곳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은 7백50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헬기로 사단 도솔대대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이곳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체감온도가 섭씨 영하 10도로 떨어진 혹한 속에서도 경계를 서고 있는 장병들을 일일이 악수로 격려했다. 이어 도솔대대 병영식당에서 1백여 명의 장병과 함께 병사 식반에 직접 밥을 퍼 점심을 함께했다.

장병들과 함께 배추김치와 채소 샐러드, 돼지고기 김치찌개 등을 메뉴로 점심 식사를 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면서 “공격을 먼저 하지는 않지만 공격을 받으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1 가칠봉 관측초소를 시찰 중인 이명박 대통령.
2 불을 뿜고 있는 K-1 전차.
3 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500MD 헬기.
4 적의 공격 원점을 포격하는 K-9 자주포.
5 표적을 향해 발사되는 다연장로켓 '구룡'.
6 K-1 전차를 엄호하는 AH-1S 코브라 헬기.

이 대통령은 또 "그동안 많이 인내했다. 인내하면 이 땅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면서 "이제는 강력히 대응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고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는 K-9 자주포와 1백30밀리미터 다연장로켓 등 지상무기와 F-15K 등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동계 공중·지상합동훈련이 펼쳐졌다.

적의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군의 대비태세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훈련에는 육군의 K-1 전차와 K-9 자주포 등 화기 11종과 AH-1S 공격헬기, 공군의 F-15K, KF-16 등 장비·무기 1백5대(정)가 투입되고 8백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이날 훈련 규모는 겨울에 실시되는 공지합동훈련 중 최대 규모다.

해군도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1함대는 12월 22일부터 나흘간 강원 거진항 동쪽 해상에서 초계함과 호위함 그리고 링스헬기 등을 동원해 북한 잠수함(정)의 남하를 가정한 대잠훈련과 함포 사격, 벌컨포 사격 등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경제발전 모범국’에서 ‘청렴 선도국’으로

‘반부패 행동계획’ 마련… 매년 각국 정상에 진전사항 알려

서울 G20 정상회의는 그간 G20가 지향해온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냈다. 특히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 및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부패 방지 및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재확인하고 G20 회원국 간의 공조를 약속하는 반부패 행동계획을 승인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조영철 기자

박성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부패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폐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수십 년 전부터 공조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에서 진행돼온 반부패 논의와 협력을 살펴보면, 1977년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제정을 시작으로 199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제정을 거쳐 2003년에 유엔반부패협약이 체결됐다.

이에 더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급부상한 세계 경제협의체인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난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래로 반부패 의제가 논의돼왔다. 각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이자 경제성장 및 발전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부패’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모범국’에서 ‘청렴 선도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개최된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좀 더 실천적인 반부패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G20 반부패 실무그룹’ 설치에 합의했다. 반부패 실무그룹에서는 그동안 컨퍼런스콜(전화회의) 및 대면회의를 통해 G20 국가 및 국제기구의 반부패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상들에게 제출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 수석대표로 국내외 의견 적극 조율

그 결실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 및 발전의 심각한 장애물이며,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고,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또한 행동계획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과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매년 각국 정상들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반부패 행동계획에는 ▲부패 공무원에 대한 금융 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 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를 위한 협력체제 고려 ▲범죄인 인도 ▲사법 공조 및 자산 회복 등 각국 간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민관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엔반부패협약 이행 점검 체계에 따른 각국의 투명하고 포괄적인 점검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반부패 행동계획이 순조롭게 마련된 것은 아니다. 유엔반부패협약 및 OECD뇌물방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몇몇 국가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행동계획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부패가 경제성장의 심각한 장애물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거듭 밝혔다. 동아DB

이에 따라 우리는 수차례의 물밑협상과 의견 조율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부패방지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측 수석대표를 맡아 국내외적으로 반부패 대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G20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에서는 회원국에 대한 반부패 역량 배양 지원 등이 중요함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행동계획 합의에 기여했다.

인도네시아·태국과 반부패 양해각서 체결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반부패 행동계획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발전 모범국'에서 '청렴 선도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방글라데시, 부탄에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등 반부패 기술을 전수했으며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반부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기술 지원 협력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들어 베트남, 몽골과 반부패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술 지원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월드뱅크는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반부패 기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은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G20 반부패 행동계획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국내 반부패 규범 및 정책 현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G20 차원의 반부패 논의 및 이행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반부패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우리의 우수한 부패 방지정책과 행동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을 널리 알리는 데도 앞장설 것이다.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됐으며, '서울선언'에 포함됐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한다. G20 반부패 선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G

서울 G20 정상회의는 비즈니스 서밋이라는 새로운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G20 논의에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고 G20 합의 이행에 기업의 호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영철 기자

비즈니스 서밋, 세계 경제사 잇는 출발점

차기 프랑스·멕시코서 비즈니스 서밋 정례화

세계가 2010년 G20 의장국인 대한민국에 물었다. "위기 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으로 화려하게 대답했다. 세계 정상급 비즈니스 리더 1백20명이 4개월의 준비 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G20 재무장·차관과 교섭대표에게 전달하고, G20 정상 12명과 그룹별로 정책 대화를 하는 민관 정책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박정성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장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G20 정상회의와 함께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2월부터는 경제 전문지 〈포춘〉의 글로벌 기업순위 2백50위를 기준으로 초청장을 발송하고, 5월에는 논의 주제, 진행 방식 등을 담은 논의 개요(Scoping Paper)를 발송하는 한편 7월에는 참석자를 12개 협의단에 배정했다.

또 9월에는 중국 톈진에서 협의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협의단별 보고서를 재무장·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에게 전달하고, 11월 초 총 12개 협의단의 사전보고서와 68개 권고안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완성했다.

11월 11일 개막총회에는 34개국 1백20여 명의 세계 최고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즈니스 서밋의 막이 올랐다. 이 자리에는 개막연설을 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등 9명의 정상이 참여해 각각 1시간씩 30명의 기업인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비즈니스 서밋 프로세스 추가로 기업의 호응 극대화

한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각각 오찬과 폐막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역할과 G20와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도착시간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일정이 가능한 정상은 모두 참석한 셈이다.

이처럼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의 열띤 호응 속에 개최된 이번 비즈니스 서밋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일부로 기획된 행

사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닌 의미는 남다르다.

첫째, 다른 비즈니스 서밋처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4개월의 강도 높은 준비 과정을 거친 회의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12개 협의단의 회의 주재자를 중심으로 약 10개의 기업들이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조직위원회는 행정적인 지원만 했을 뿐 기업인 스스로 주체가 돼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권고사항을 합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사전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2백 쪽가량의 협의단 사전보고서를 G20 정부에 사전 전달함으로써 기업인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은 다른 회의와 차별되는 큰 진전이다.

둘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서밋은 G20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동안 G20는 재무장(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셰르파 회의가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 및 이행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러한 정부 간 채널과 함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을 새로운 프로세스로 추가함으로써 G20 논의에 민간의 시각을 반영하고, G20 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기업의 호응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2개 주제로 기업의 시각에서 실천방안 마련

이명박 대통령 역시 개막총회 연설 후 진행된 토론에서 "여러분이 G20를 원하는 것보다 G20가 여러분의 참여를 더욱 원하고 있다"며 G20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업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셋째, 내용상으로는 세계경제가 본격적 성장궤도로 진입하기 위한 성장동력을 민간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마련했다는 점도 큰 성과다.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이 이끌었던 협의단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성장을 끌어낼 수는 없다. 성장은 민간 엔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 지출도 한계에 와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비즈니스 서밋에서는 무역과 투자,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녹색성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에 걸쳐 12개 주제에 대해 정부가 할 일, 기업이 할 일, 민관 협력이 필요한 일 등을 기업 스스로의 시각에서 도출하고 스스로 실천방안까지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넷째,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했다. 오랫동안 다보스포럼을 이끌어왔던 클라우스 슈와브

조영철 기자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세계의 기업인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인도의 IT기업 인포시스의 크리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교수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면서 "참석자 면면은 이제껏 어떤 포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기업인이 타고 온 전용기만 해도 30대에 이른다.

처음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도 이들 해외 기업들과 접촉점이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15개의 기업이 공식 참여했고, 4개월이 넘는 준비 과정과 행사가 끝난 지금 이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다. 해외 참석자들은 국내기업과 다양한 사업적 만남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런 만남은 조직위에서 파악한 건수만도 90여 건에 이른다.

서울 정상선언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G20 비즈니스 서밋이 지속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 만든 비즈니스 서밋 모델이 G20 정상회의에서 제도화되는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미 프랑스와 멕시코도 비즈니스 서밋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의 노하우를 이들에게 들려줄 때가 된 것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이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오천 년 우리 역사가 약속한 비전의 일부라고 믿는다. 또 위기 때마다 항상 민간의 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온 세계 경제사를 반추하면서 비즈니스 서밋이 이러한 전통을 잇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G

서울 G20 정상회의 의미 잇는다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 담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 발간

지난 11월 성공리에 막을 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장(場)이자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알리는 계기였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가 남긴 성과와 의미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을 담은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으로 되짚어봤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 비(非)G7 국가 중 처음으로 의장국을 맡은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우리나라의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는 세계경제의 질서 재편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점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가교를 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2008년 11월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이전 G20 정상회의 개최국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뿐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제5차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은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별한 포지션 덕분이었다. 불과 1세기 전 나라를 잃은 비주권국가였고, 반세기 전 전쟁으로 최빈국 중 하나였지만 모든 과거를 이겨내고 경제대국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렇듯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국, 개도국들 모두의 기대 속에서 준비됐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성과는 뚜렷했다. 의장국으로서 내놓았던 개발 의제가 '서울선언'이라는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신흥 리더로서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도 얻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평가·전망 공유하기 위해 펴내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계속 구현할 수 있도록 해외문화홍보원(원장·서강수)은 서울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책자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을 펴냈다.

이 책은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발간됐다. '2010 서울 G20 정상회의, 세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제언'이란 부제처럼 G20 회원국의 언론인, 경제 분석가 등 19명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의미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책의 발간사에서 "세계의 이웃들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더 나은 지혜를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평가와 전망을 다룬 이 책은 ▲신의제 ▲기존 의제 ▲교육·문화 소통 ▲한반도 평화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로 한국이 주도한 개도국 개발 의제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꼽았다.

중국 사회과학원 리샹양(李向陽)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를 통해 G20가 글로벌 경제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협의기구로 변신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리샹양 연구소장은 그 이유로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제기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의제에 대해 각국의 동의를 얻어냈다는 점을 들었다. 개도국의 이익에 진정으로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G20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 됐고,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초 중 하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스게노 미키오 논설위원 역시 개도국과 저소득국의 성장균형을 배려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스게노 미키오 논설위원은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한 성과"라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과가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도 이어

조영철 기자

▲ 서울 G20 정상회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수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찾아와 의장국 한국의 진면모를 알렸다.
▶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코엑스 미디어센터에서 일하는 외신 기자들의 모습.

조영철 기자

지길 소망했다.

스페인 〈EFE통신〉 산티아고 카스티요 기자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G20가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는 '프리미엄 포럼'으로 격상됐다"고 밝혔다. 산티아고 카스티요 기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G20 정상회의를 공고히 하고 완전한 위기극복을 한 국제적 중재자로서 나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극찬했다.

日 〈니혼게이자이〉 논설위원 "한국의 리더십 발휘한 성과"

한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탐구한 필자도 있었다. 1987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안드레스 오펜하이머는 현재 미국 〈마이애미헤럴드〉 칼럼니스트 겸 중남미 담당 편집장이다. 그는 한국과 중남미 간에 벌어진 격차의 원인을 '교육열'로 꼽으면서 "1960년대 한국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원조가 줄어들어 붕괴 위기에 처했으나 한국인들은 교육, 과학, 기술혁신 등에 많은 투자를 해 경이적인 소득증가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의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얘기한 대목도 눈에 띈다. 오스트리아 빈대학 동아시아연구소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이제 막 새로 등장한 북한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은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자 시도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글도 실렸다. 인도 〈더힌두〉의 아쇼크 다스굽타 편집장은 "세계경제를 살리는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이 내수에 집중하고 미국은 소비국가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해외문화홍보원 해외홍보콘텐츠팀 ☎ 02-398-1912 korea.net

“추가협상, 나무가 아닌 숲을 봐달라”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12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7년 4월 합의됐던 한미 FTA는 약 3년 반 만에 마무리를 짓게 됐다. 그동안 발효가 연기되며 한미 FTA 체결효과를 보지 못했던 관련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추가협상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만나 일부에서 제기한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조영철 기자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처지에선 FTA는 필수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일부의 시각은 부분적인 이슈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듯해 안타깝습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2월 3일 한미 FTA 추가협상이 타결된 이후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도하개발어젠다 협상대사와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등을 거쳐 지난 6월부터 FTA 교섭대표를 맡아온 그는 “추가협상 자체도 이익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추가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서명 후 3년 반가량 발효가 미뤄져온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일”이라고 ‘숲’의 의미를 설명했다.

“추가협상을 한미 FTA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미국은 교역 규모가 7백50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이며 단일시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한미 FTA는 바로 이러한 거대시장에 대한 접근로를 열어준 협정입니다.”

이번 추가협상이 원래 협정보다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가협상에서는 자동차에 돼지고기, 의약품, 비자 등을 추가해 양국 간 이익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했지만 수치상 손익계산이 불가능한 분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는 금방 수치로 계산할 수 있지만 서비스나 투자 분야의 수익은 계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협상의 수치화된 결과만으로 추가협상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그간 한미 FTA의 발효 연기가 15조원의 손실을 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추가협상에 즈음해 미국 언론은 추가협상의 핵심 사안이 자동차와 쇠고기라고 보도하며 우리 측을 압박했는데, 정작 추가협

상에서 쇠고기가 빠지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2008년 4월과 지난해 6월 미국과의 두 차례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한국 소비자가 신뢰할 때까지'라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늘면서 미국 측은 쇠고기 월령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신뢰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신뢰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제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쇠고기와 FTA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한미 간 민간 업자들끼리 월령제한을 논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조건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 민간의 합의만으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추가협상에서 도입된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Safeguard) 항목은 불리한 것이 아닌지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인 세이프가드는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어떠한 협정에도 들어 있습니다. 기존 한미 FTA 협정에도 있습니다.

추가협상에서의 자동차 관련 세이프가드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면서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FTA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EU FTA에 포함된 6개 사항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은 매우 까다롭고, 세이프가드 발동 시 발동하는 국가는 그에 따른 보상을 상대국에 해줘야 합니다.

또 양자 간 FTA 체결국 간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는 국제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세이프가드란 휘두르지 않고 과시만 하는 '갑 속의 칼'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한·EU FTA도 추가협상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EU FTA의 추가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EU의 경우 관세 분야만 보면 한미 FTA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한국시장에 들어오는 돼지고기는 미국산과 유럽산이 서로 경쟁관계인데, 유럽산은 내년 7월 FTA 발효 즉시 관세 장벽이 사라지지만 미국산은 관세가 2년 더 연장돼 있어 앞으로 4년간 관세 장벽이 유지됩니다.

최근 EU와 FTA 추가협상을 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지구온난화 물질 규제 관련 협상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미국과도 같은 성격의 협상을 했기에 EU와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고, 이는 이들 국가 외에도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 모두에 해당되는 협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EU와 진행 중인 협상은 FTA 추가협상이 아닙니다.

추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국제적인 협상에 나서게 되면 전선이 두 군데 형성됩니다. 하나는 국내 전선이고, 다른 하나는 협상 상대국과의 전선입니다. 어떤 협상이든 국내 전선이 더 어렵고, 특히 무역협상은 협상국은 하나인 데 비해 국내 이해 당사자는 많아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내 전선이 대하기 어려워도 국내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상대국과의 협상도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대표로서 가장 큰 고민은 추가협상 자체보다도 국내 합의 도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판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잘된 것으로 평가해주신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도를 느꼈습니다. 정부가 이번 추가협상에 나선 것은 미국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에 처한 현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은 수정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의 82퍼센트(2009년 기준)를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무역 창출은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역 활성화에는 시장 확대가 가장 큰 명제입니다. 시장 확대는 한동안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무역 장벽 제거로 진행돼왔으나 2001년 도하개발어젠다협상 이후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양자 간 무역자유화'인 FTA입니다. FTA 비판자들은 개방으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뤄온 과정을 보면 폐쇄 시보다 개방했을 때 훨씬 능동적으로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게다가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선 글로벌 FTA 네트워크 형성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안전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FTA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G

글·박경아 기자

6대 종단이 함께한 평화 여행

6개 종교 지도자, 기독교 성지순례 다녀와

종교는 믿음이다. 하지만 가끔 그 믿음은 갈등을 낳기도 한다. 양보와 타협 없이 자신의 믿음만 내세우기 때문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종교인들은 각자의 믿음을 하나로 합치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7박8일간 성지순례를 떠났다. 그곳에서 이들은 '종교 간 화합'이라는 일치된 순간을 만났다.

성지순례는 신앙인에겐 그지없이 숭고한 일이다. 스스로의 신앙심을 북돋운다.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성지순례가 해당 종교를 가진 이에게만 귀한 일은 아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는 이웃 종교의 성지를 탐방함으로써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어쩌면 종교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묻게 되고, 종교 간 화합의 중요성을 절감하기도 한다. 행하는 의례와 의식은 다르지만 모든 종교는 나를 포함한 인류의 평화와 행복, 공동선의 실현 등 궁극적 목적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동지일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는 게 이웃 종교 성지순례다.

국내 7개 종교 지도자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종교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6개 종교 지도자가 12월 15일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베네딕토 16세를 만났다. 국내 종교계 지도자들이 단체로 교황을 만난 것은 처음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마지막 일정으로 최고랍비위원회의 최고 랍비 요나 메츠거와 환담했다. 메츠거 최고 랍비와 인사를 나누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대표회장.

도자협의회 지도자들이 이웃 종교 성지순례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2010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 이웃 종교 체험 성지순례'다. 성지순례를 통해 이웃 종교의 역사와 문화를 알고,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성지순례는 최근 종교 간 불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의미가 더 컸다. 늘 일정이 빠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해외의 이웃 종교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도 뜻깊은 일이다.

이웃 종교 성지 탐방 통해 종교 간 화합의 중요성 느껴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이스라엘과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등 기독교 성지를 찾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지도자들의 성지순례에 동참했다. 순례에는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이광선 목사, 대한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천주교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광주대교구장), 원불교 김주원 교정원장, 성균관 최근덕 관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양원 회장 등 6명의 지도자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 등이 함께했다.

12월 9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순례단은 11시간여의 긴 비행 끝에 이스라엘 텔아비브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0일 첫 순례지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3개 종교의 성지가 모여 있는 예루살렘성.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십자가의 길)'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시장통 골목인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가 쓰러진 곳 등 관련된 기념장소 14곳으로 구성됐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순례단은 십자가를 진 예수의 의미를 생각했다. 유대교 성지인 '통곡의 벽'을 찾은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벽에 손이나 이마를 대고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흰 두루마기에 갓을 쓴 한양원 회장은 순례 도중 사진을 찍으려는 세계 각국 사람들로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종교 간 화합을 위해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순례에 나섰다"는 말에 그들은 하나같이 놀랍다는 반응이었다. 한 회장의 '인기'는 순례 기간 내내 가는 곳마다 이어졌다.

마영삼 주(駐)이스라엘 한국대사에게서 이스라엘의 종교 정책, 종교 간 갈등 상황 등을 들은 지도자들은 종교 간 대화와 평화의 중요성을 거듭 되새겼다. 성지가 모인 예루살렘은 그 이름처럼 평화로운 도시여야 하지만 사실은 종교·민족갈등으로 가장 평화가 필요한, 긴장감이 팽팽한 곳임을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그 긴장감은 지도자, 운영위원들이 종교 화합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로 자연스레 이어지기도 했다.

지도자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상수훈(설교) 현장인 팔복교회, 두 마리의 물고기와 다섯 개의 떡으로 5천명 이상을 먹였다는 오병이어교회, 예수가 성장한 나자렛 마을,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지 등을 둘러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교황청 방문… 종교 간 대화·평화의 가치 등 논의

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늘 함께한 예수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예수의 삶을 따르는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경 속 현장을 체험했다.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최고랍비위원회의 최고 랍비 요나 메츠거와의 환담이었다. 랍비위원회와의 만남을 통해 지도자들은 종교 간 대화의 중요성에 의견일치를 봤다. 메츠거 최고 랍비는 "종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로마 바티칸을 방문한 6대 종단 대표 지도자들.

간 갈등은 예민한 문제이자 해결도 쉽지 않은 분야"라며 "종교 지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순례를 함께한다니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12일 오후 이스라엘을 떠난 순례단은 13일 로마 시내의 성지와 유적지를 돌아본 뒤 로마 교민들을 만찬에 초청해 이국 생활을 위로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북돋웠다. 14일에는 이탈리아 중부지방 아시시를 찾았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신앙의 길을 택해 '가난 속에서 부유함'을 추구하고, '가장 낮아짐으로써 가장 높아진' 프란체스코 성인의 뜻을 알기 위해서였다. 프란체스코수도회 창설자인 그의 삶과 정신은 전 세계 프란체스코수도회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성지순례 통해 우리 사회의 종교 간 화합·상생에 기여"

아름다운 중세도시 아시시는 세계종교지도자회의가 열리는 등 세계 평화와 종교간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순례 마지막 일정은 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와 환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의 만남이었다. 15일 순례단은 교황청을 방문해 종교간대화평의회 피에르 토랑 의장(추기경) 등을 만나 종교 간 대화와 평화의 가치, 의미, 중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랑 의장은 순례단에게 이웃 종교 성지순례가 종교 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환담을 마친 순례단은 곧 교황을 만났고, 일정상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귀국길에 올랐다.

종교 간 화합을 유지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이다. 순례를 마친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순례가 우리 사회의 종교 간 화합과 상생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성지순례처럼 이웃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종교 간 화합에 분명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G

글 · 도재기(경향신문 문화부 기자)

불교와 기독교의 하모니

조계사에 사랑으로 밝힌 첫 성탄 트리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에 처음으로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다.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 한지로 만든 커다란 전통 등(燈) 모양의 성탄 트리 3개가 세워진 것.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불교계는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조계사 앞마당에 대형 트리를 세우고 캐럴을 부르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처음이다. 조계사의 성탄 트리는 불교와 기독교 간의 화합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날 성탄 트리 점등식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원생이 참석했고, 조계사 합창단이 캐럴을 불러 훈훈한 연말연시 풍경을 만들었다.

자승스님은 이날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성탄은 구원과 평화, 고난 극복의 상징"이라며 "우리도 그분의 삶을 본받아 남북 갈등으로 빚어진 불안, 정치권 혼란으로 인한 상심, 평화와 관용을 위협하는 아집과 독선을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글 · 김민지 기자

연합

조계사 일주문 앞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혔다. 12월 20일 점등식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원생들이 성탄 트리를 살펴보고 있다.

기 획 특 집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자리 만드는 성장경제”

백호의 포효로 문을 연 2010년의 끝자락입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론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도 돌 수 있도록
노력하느라 분주한 한 해였습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2011년은
빛과 어둠, 양지와 음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사회’를 화두 삼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안전망과 고른 교육과 취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공평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서민금융의 상징인 미소금융도 2011년에는 서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 문을 연 미소금융 1백호점 개점 행사에 참석해 미소금융 수혜자, 상담자 등과 함께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선진국가 발돋움

2011 경제목표 '5% 경제성장, 3% 이하 물가, 28만 개 일자리'

한국은행은 최근 올 한 해 우리나라가 6.1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이룬,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다. 그런만큼 2011년 새해 펼쳐질 국정 전반에 대한 기대도 높다.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이 같은 새해 전망과 함께 경제와 교육, 법과 안전, 복지까지 고르게 선진 일류국가를 향한 큰 걸음을 예고하고 있다.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5동에서 조촐한 시루떡 잔치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오전 미소금융 1백호점인 미소금융 노원지점을 방문해 미소금융 수혜자와 상담 신청자, 미소금융 직원 등과 함께 시루떡을 썰며 '미소금융 1백호점 개설'을 축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서 삼성미소금융재단이 '수원 1호점'을 연 이래 꼭 1년 만에 미소금융 1백호점이 개설된 것이다. 미소금융은 지난 1년간 제도권 금융회사와 거래가 어려운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게 낮은 이자로 소액을 대출하는 서민금융의 상징이 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분식집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상담자를 만난 자리에서 미소금융이라는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젊을 때 재래시장에서 노점상을 할 때는 일수를 썼는데 하루 장사가 안 되면 겁이 나서 (일수를 놓은 사람에게) 다가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 효과적 운영방안 논의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은) 돈 떼일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떼인다"며 "제때는 못 갚더라도 꼭 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없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돈 안 떼먹는다는 거 내가 보증합니다."

실제로 미소금융의 효과는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전 도마큰시장은 지난 8월 미소금융 전국 최우수 운용 전통시장으로 선정되며 사채를 몰아낸 공로로 12월 16일 미소금융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미소금융 도입 이후 점포 4백94개, 노점상 1백60여 개에 6백50여 상인이 일하고 있는 도마큰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상인들이 사채 대신 미소금융 혜택을 보고 있다.

12월 14일 시작돼 12월 27일까지 이어진 정부부처의 2011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미소금융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한 분야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날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5퍼센트 경제성장, 3퍼센트 이하의 물가, 28만 개의 일자리'라는 2011년 경제 목표가 제시된 이날 경제정책 관련 3대 주요 부처(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경제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뚜렷하게 목표 제시를 했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며 경제성장 목표가 곧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임을 명확히 했다.

12월 15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는 '상생을 뛰어넘는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으며, 17일 진행된 교육과학기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과 좋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10년을 내다보는 핵심 정책이 보고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는 케이블방송 엠넷의 신인가수 발굴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2 우승자 허각이 토론자로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허각은 이날 청와대에서 "저는 공정사회에 맞게 혜택을 본 사람"이라며 "꿈이 있는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사회"라고 말했다.

안전한 선진 대한민국이 강조된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업무보고(20일)에 이어진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업무보고(22일)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3백9조원)이자 전체 예산 중 28퍼센트로 비율로도 역대 최고인 복지예산을 기반으로 펼쳐질 다양한 복지사업이 보고됐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적 모델이 되길"

이 대통령은 이날 복지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복지가 세계의 모델이 되면 좋겠다"며 '한국적 선진모델'을 언급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것 중 세계적 모델이 되는 것이 많다. G20에서 후진국 개발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한 이 대통령은 "복지 문제도 선진국들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검토해 우리 나름대로 시대에 맞는 복지모델을 만들어내면 개도국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 1백호점을 방문했던 날, 이 대통령은 그날 오후 내친 김에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 '나들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였다. 나들가게는 지역 영세 점포들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에 대응해 자생력을 갖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혁신형 종합점포다.

중소기업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 나들가게 3천 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에서 곧장 나들가게로 이어진 이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 2011년 국정 기조의 향방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다. 내년에도 정부의 따뜻한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 양지와 음지가 따로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끌고자 하는 메시지 말이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부처 업무보고 외에도 12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2011년 정부 정책에 반영할 만한 거시경제, 일자리·인재 양성, 재정·복지 등을 점검했다.

일자리 창출·물가 관리에 총력

"민간 부문 중심으로 28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자리 만드는 경제성장'을 2011년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첫 테이프를 끊었다.

"올해 우리 경제는 6퍼센트 성장이 예상되지만 서민 체감경기, 생활물가, 청년 일자리,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정부부처의 2011년도 업무보고 첫날인 12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에 화답하듯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5퍼센트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물가는 3퍼센트 이상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업무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뒤를 이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으며 고용노동부에는 "일자리 창출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며 최고의 복지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국정의 중요도에 따라 업무보고 순서를 정하는 만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경제 부처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맨 먼저 진행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그만큼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12월 22일부터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현장.

기획재정부 | 질 높은 성장과 서민생활 안정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도 업무 추진계획은 '활기찬 경제, 성숙한 시장'을 목표로 한 5대 핵심 정책과제로 요약된다.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5대 핵심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견고한 성장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지원 ▲경제체질 개선과 건전성 제고 ▲G20 후속 조치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 ▲공공 부문 건전성 제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등 구체적 일자리 창출방안도 마련해 추진한다. 녹색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더딘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들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을 다지고 중산층을 두껍게 할 계획이다.

물가가 치솟아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유통단계별, 업태별 유통구조를 분석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은 관세를 낮춰 경쟁 촉진과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관계기관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히 감시하도록 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하거나 유망한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키우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 금융부실 대응과 서민지원 내실화

금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 골자는 시장불안 선제 대응과 실물경제 지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금융 시스템 선진화로 압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금융산업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가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개선한다. 가계 대출의 경우 장기 고정금리 대출과 원금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PF 대출은 부실 예방을 위해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PF 대출은 조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원전, 고속전철 등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녹색기업에 대한 투자촉진 유도를 목적으로 '녹색경영 공시제도' 도입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내년 금융지원 규모는 92조3천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98조9천억원보다는 줄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의 80조6천억원에 비하면 10조원 이상 늘었다. 자금은 수출, 녹색, 기술개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거 지원된다.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소금융의 1인 출장소와 순회 상담팀을 늘려 더 많은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현재 39퍼센트에 달하는 법정 상한 금리와 카드 수수료를 떨어뜨려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은행에서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의 감시 기능과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 근로형태 다양화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내년도 업무목표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시간제 근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일자리의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정원 기준을 '인원'에서 '근로시간'으로 전환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린다.

이에 따라 시간제 고위공무원도 뽑는다. 병원, 은행, 보육시설, 도서관 등에서 주말·야간 운영을 돕는 인력을 추가 채용할 때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 창출 지원사업도 벌인다. 기업이 실제 근로시간 축소, 교육훈련·안식휴가·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월평균 60만원(연 7백2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또한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정부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잇따라 시행한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가 도입되며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연간 2천 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반성장’으로 선진경제 발판 마련

대기업·중소기업, 기업·소비자가 함께 발전하는 환경 조성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면서 세계 7대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경제의 2011년 키워드는 ‘동반성장’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역량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정부 경제정책의 추진축이라 할 수 있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목표를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식경제부 | 무역 1조 달러 시대 산업기반 구축

지식경제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의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큰 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융합과 녹색을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와 성장 가속화 ▲새로운 시장 확보와 내부 혁신 시스템 선진화 추진 등이다.

지식경제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우선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개발을 세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식경제부는 지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동반성장 관련 애로사항 등도 적극 발굴한다.

또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협력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사업 참여 비중을 2012년까지 25퍼센트(현재 17.9퍼센트)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ATC) 지원 예산도 4백9억원에서 5백8억원으로 늘린다.

이 밖에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World-Class 300’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2011년 1분기에는 후보기업 30개를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까지 세계적 글로벌 중견기업 3백 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선 계획을 마련할 경우에는 즉시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와 제도상의 특례 패키지를 지원해 갑작스러운 퇴출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역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힘쓴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2분기 ‘지역 Star Company’ 2백 개를 선정해 해외 진출 등을

동아DB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은 2011년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핵심과제다. 지난 10월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지원하고, 현장 밀착형 산학연 클러스터를 확충하는 등 지역 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산업의 융합을 선도해 성장 가속화의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세계 선도적 위치에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존 정보기술(IT)산업의 바탕 위에 스마트TV, 4G 스마트폰 등 IT융합 신제품 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시장 수요가 급증하는 바이오, 헬스 분야의 산업화도 본격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도 본격 시도한다.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2차 15대 그린에너지 전략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그린에너지 연구개발(R&D) 추진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법'의 제정도 적극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주력산업화하기 위해 1백 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등 액션플랜을 가동하고, 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절약(ESCO)펀드도 1천5백억원을 조성한다.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도 높인다. 올해 10퍼센트에서 내년엔 13퍼센트로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특히 희토류, 리튬 등 국제적으로 자원 수급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신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현재 5.5퍼센트에서 10퍼센트대로 끌어올리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리튬삼각지대로 알려진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희토류 광산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지역에 맞는 시장 대응을 펼치면서 선진형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을 집중 공략하는 '플러스 알파(+αfrica)' 전략을 수립해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원 개발 및 인프라 수주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 네트워크를 보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공정한 기업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중소기업 원가절감 인증제도' 및 '민관 R&D 협력펀드(2천억원)'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업종별 '현장 원가절감 모델' 발굴을 독려해 전체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분위기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끌 방침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도 올해보다 12퍼센트 늘려 6천2백88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녹색, 나노 등 8대 중점 분야에 3천7백4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도 2천 개 정도 집중 육성해 중소기업

연합

2011년 경제정책의 키워드인 '동반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할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12월 13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수출 비중을 올해 전체 수출의 32퍼센트에서 2013년까지 35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나들가게 3천 개, 전통시장 5백 개를 선별해 중점 육성한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도 올해보다 10퍼센트 늘리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현재 2만8천1백명)도 기업 수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동반성장을 위한 거래질서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질서 개선과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물가안정화, 소비자 피해 방지장치 보완 및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과제를 내놓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대립각이 가장 큰 납품단가의 조정 활성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때에 따라선 '즉시조정개시제도(Fast Track)'의 발동요건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 등을 구체화해 기술탈취 및 유용 행위를 방지하고, 이런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엔 입증할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불공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고발요건도 하향 조정하는 등 제재도 강화해 반복, 상습적인 위법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판매수수료 수준을 공개해 업체 자율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농축산품, 가공식품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소비자가 가격정보를 알기 어려운 품목 등은 담합 등을 막는 차원에서 정부 합동 불공정행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펀드나 보험 등 금융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사후구제도 강화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만적 판매행위도 상시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미래의 먹을거리 소프트 파워 육성

교육 사다리 구축·문화복지 확대 등 계층·지역 간 격차 해소 앞장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업무계획에서 '교육희망 사다리 구축'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 기가급 인터넷 도입 등의 새해 업무계획을 마련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복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계층·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학·통신·문화 부문에서 세계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동아DB

특성화고는 현장실습을 강화해 취업중심 학교로 정예화한다. 경북항공고 학생들이 교내 항공실습장에서 F-5 전투기 내부 구조를 공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 일자리 연계체제 강화

중1, 고1학년부터 과목 수를 8개 이하로 줄여 학생들의 학습·과제·시험 부담을 덜어주고, 1천5백 개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해 진로·진학교육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일반교사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창의·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맞춤형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제' 적용 학교를 올해 8백6개교에서 내년에는 1천 개교로 확대한다.

또 대입 전형의 공교육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올해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EBS 교재와의 연계 논란과 관련해 연계 대상 교재 수를 크게 줄이고 연계방식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이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 연계 체제도 강화한다. 예비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취업 선도 모델학교로 정착시켜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학생 채용약정을 내년에는 80퍼센트, 2012년에는 1백 퍼센트로 늘린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현장실습, 해외 인턴십 등을 실시하는 등 취업 중심 학교로 정예화한다.

전문대 교육도 현장 중심으로 내실화하며 취업 역량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 전문대를 세계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특정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대생에게 산업기사 등 국가자격을 주는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교육을 융합형으로 가르치는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Mathmatics)'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부생에서부터 국가과학자에 이르기까지 우수 과학인재가 단절 없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GPS(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밖에도 국가 연구개발(R&D)을 종합 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내년 4월에 출범시키고, 세계적 지식 창출의 허브가 될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에 착수하는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유치

문화바우처 대상자가 올해 35만명에서 내년에는 1백63만명으로 4.5배 늘어난다. 관광바우처 수혜자는 1만1천여 명에서 4만5천여 명으로, 체육바우처 대상자도 1만3천9백여 명에서 3만4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많아진다.

궁, 능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대상자도 확대해 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계층, 청소년 등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2백2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매월 특정일을 '관객의 날'로 정해 청소년 및 동반자 2인에 한해 1인당 1천원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의 핵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에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연다는 목표를 세웠다. 11월 29일 한국관광공사는 사상 첫 외국인 방문객 8백만명 돌파를 기념해 인천국제공항에서 8백만 번째 입국객 환영행사를 열었다.

동아DB

심은 문화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지방비를 포함해 3천1백억원을 새로 투입해 거주지 주변의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 지역을 국민 여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스포츠·관광 사업도 본격화한다.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을 성장동력화하는 것도 한층 힘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콘텐츠 수출을 38억 달러(올해 32억 달러)로, 고용 규모도 53만3천명(올해 52만1천명)을 목표로 잡았다.

최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에 집중해 '외래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1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컨벤션 참가 외국인 6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 고품격 전통문화체험 등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관리담당관 권수진 서기관은 "계층·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콘텐츠·관광·체육 분야에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해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 미래 유망 기술 육성과 국제 표준화 선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부담 완화, 전국 와이브로(WiBro·무선 광대역 인터넷)망 구축, 기가(Giga)급 인터넷 도입 등 새해 통신 분야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6백만명을 넘어섰다. 내년에는 2천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0퍼센트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스마트폰은 일반 휴대전화에 비해 요금이 비싸

동아DB

무안경 3D TV, 스마트TV, IPTV, N스크린 서비스 등 미래 유망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지난 9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e-러닝 위크'를 찾은 관람객들이 각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IPTV 콘텐츠 등을 체험하고 있다.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이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하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 무료 음성통화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비, 기본료 등이 없는 휴대전화 선불요금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소년이나 노인층 등 통화량이 많지 않은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보급 등에 맞춰 와이파이존도 현재 6만6천여 개에서 내년에는 16만5천여 개로 2.5배 늘리기로 했다. 또 TV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중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유휴대역을 와이파이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하고, 디지털 TV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에는 이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TV 유휴대역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도달 범위가 넓어 농어촌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전국 82개 시와 주요 고속도로에는 와이브로망이 구축되고, 전국 6개 도시 1천7백 가구에 현재보다 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다. 영화 한 편을 7초에 내려받을 수 있는 기가급 인터넷은 2012년 상용화된다.

이 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3D TV와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래 유망기술 개발과 국제 표준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안전한 나라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 위한 선진법치 실현에 앞장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쳤다. 법제처는 국민 중심 선진법제 마련,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정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선진법치 실현 등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마련했다.

법제처 | 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한 법제 정비

12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처,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맨 처음 업무보고를 한 법제처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치 확립을 목표로 내년도 계획을 세웠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24위지만 법제도는 50위권에 머문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순위 역시 종합 22위지만 법제도는 60위권으로 선진화 단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제처는 법치 확립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의 선진화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복잡한 법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간결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서민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접근에서의 기회 균등 실현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 내년도 업무계획의 큰 흐름은 '친서민 법제개선'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과 같이 복지 혜택이 미흡한 계층을 위한 법제 개선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것이 재해 발생 시 주택 세입자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3개월 거주요건을 폐지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재해가 발생한 주택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만 임대주택 특별공급이 허용돼왔다. 하지만 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 제한도 해제된다. 해당 시도에 사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장애인들은 어디든 콜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동아DB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 도발로 인한 불안한 안보환경에 따라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12월 15일 오후 2시 운전자와 승객까지 차량에서 내려 대피소로 이동해야 하는 민방위 특별훈련이 11년 만에 열렸다.

있게 된다.

성실한 자영업자인 서민을 위한 위반누적점수제도 도입됐다. 예전엔 사업자가 한 번이라도 법 위반을 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일을 그만둬야 했다. 하지만 생업을 중단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막기 위해 위반누적점수제가 마련됐다. 이 점수제는 기존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같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해 위반점수를 부과하고, 그 누적점수가 일정 이상일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다.

법제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입법 포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로써 정부의 입법 과정에서부터 법령안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댓글과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국민 입법의견 센터'를 내년 11월까지 마련해 입법 과정에서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 선진형 지방행정모델 개발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업무 목표를 '안전 대한민국, 선진정부 구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해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선별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비상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로 빚어진 불안한 안보환경에 따라 비상대비 조직과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을지연습 내실화 등 비상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선제적 재난 관리를 강화하고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선진형 지방행정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자체를 확충하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 연계지역에 녹색기반을 확충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정 핵심 분야를 보강하고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 기조대로 행정안전부의 마지막 어젠다는 '공정하고 품격 있는 사회 조성'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 우선 제공, 시군구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재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내년도엔 전자정부 수출 2억 달러 달성, 새마을운동 세계화 등 국가브랜드의 해외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법무부는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전국 18개 일선 검찰청이 성폭력 대책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법무부 | 안보 대응과 사회적 약자 보호

법무부는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가안보 위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안보위기 대응 강화'를 내년도 중점 업무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성폭력·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검찰의 신뢰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 ▲글로벌 법무행정 추진 ▲포스트 G20 미래 대비 등 구체적 정책 과제를 세웠다.

법무부는 정책 여론조사를 통해 법질서 확립과 부패 방지, 친서민·사회적 약자 보호를 축으로 핵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안보위기 대응 강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종북 단체의 이적 활동을 엄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신종 대남 선전활동을 적극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연이은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된다. 여기에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대거 배치해 성폭력·성매매, 아동 대상 범죄 등의 사건 수사와 공판을 전담하게 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가 도입된다. 아동 전담 검사가 피해아동의 신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피해아동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민형사 사법절차를 포괄해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계획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 신설이 그 예다. 이 기금은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에 활용된다. 출소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출소자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G

글·김민지 기자

동아DB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홀몸노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동아DB

국가보훈처는 2011년부터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지원

국가유공자 취업제도 개선·10만여 개 여성 일자리 창출 계획

보건복지부는 2011년 업무계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구 보호를 내실화하고 빈곤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안보를 위해 몸 바친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한층 강화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새일센터를 통한 10만 개 일자리 창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예산 확대 등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정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5.6% 인상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던 최저생계비가 5.6퍼센트 인상된다. 또한 주거 및 교육급여도 현실화하는 등 위기가구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우선 돌봄 차상위를 발굴해 일자리 연계 등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까지 소득 하위 50퍼센트(약 76만명)에게만 지원되던 보육료 전액 지원이 내년 3월부터는 소득 하위 70퍼센트(약 92만명)까지 확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이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시설 내 학대 및 체벌 예방교육, 아동학대자 영구 퇴출 등 시설과 보육 종사자에 대한 기준 강화로 내년부터는 좀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시행된다.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안마사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정적 자립을 도모한다.

당뇨 소모품이나 노인층 환자에 대한 골다공증 치료제 비용이 건강보험 항목으로 인정받는다.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고가의 항암제나 특수방사선 치료도 급여로 인정돼 내년부터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환자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소아환자가 응급 성인환자와 함께 진료를 받는 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환자를 위한 24시간 외래 진료공간이 구축된다. 또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를 개선한 의료기관 인증제를 시행하고, 국내 인증 시스템에 대한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의 인증을 획득해 국내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본격화한다.

동아DB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늘리고 생활정보를 제공해 건전한 국제결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금액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여'나 혼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홀몸노인 사랑 잇기' 등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정책 등도 올해와는 달라지는 내용들이다.

국가보훈처 | 국가안보 인한 사망 · 부상자에 보상과 예우 강화

국가보훈처의 2011년 보훈정책은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보훈제도의 선진화, 국격제고에 이바지하는 보훈외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청소년 의식구조 전환을 위해 천안함, 제2연평해전 계기 수업교재 등 호국교육 자료집을 발간해 각 학교에 배포하는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봉사체험 프로그램인 '나라사랑 앞섬이'를 운영할 예정이다.

안보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도 높아진다. 전몰, 순직 유족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면서 거동이 불가능한 상이 1급 중상이자에게 특별수당이 지급되고, 6·25 참전자에 대해서도 연령과 국가 공헌도에 따라 지급 수당이 인상된다.

젊은 경상이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재활상담과 치료, 적응훈련이 연계된 복지지원체계가 마련되며 경상이자 일시금 제도가 도입돼 이들의 경제적인 조기 자립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투상황에서 입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진료를 위해 보훈중앙병원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고 직업 활동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의 취업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취업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올해 6·25전쟁 60주년 사업의 정신을 이어받아 유엔 참전용사 위로 감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6·25전쟁으로 맺은 혈맹관계를 미래협력 네트워크로 계승 발전시켜 보훈외교를 활성화한다.

유엔 참전국 중 저소득국 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16개 참전국이 참가하는 대학생 평화캠프 확대 실시 등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밖에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건립과 유엔 참전국 참전기념 시설 건립 적극 지원 등을 통해 유엔 참전국과의 상호 이해 증진과 재외동포들의 역사교육 및 정체성 확립을 도모한다.

여성가족부 |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로 여성취업 확대

여성가족부는 2011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1년에는 국격에 맞는 여성인력 활용, 온(溫)가족 희망 보듬기, 성숙한 다문화 사회 조성, 청소년 밝은 미래 열기,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경력단절여성, 고학력 여성, 청년 여성 등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치게 된다. 또한 여성새일센터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센터를 연계해 10만여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포함한 가족사랑 키우기 사업, 가족친화 기업·공공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부모 교육, 사회적 재난 등 위기상황 가족 지원 서비스인 '가족보듬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맞벌이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양육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와 가족 해체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제결혼을 건전화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결혼 상대국 주한 대사와의 협의체를 운영하며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다문화자녀 언어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을 펴나갈 예정이다.

여성·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에게 안전한 길을 안내하는 아동안전지도 작성,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24만 개소)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과 신상정보를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우편고지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G

글 · 이윤진 기자

“들리지 않아도 눈으로 감동 느껴요”

명동예술극장, 자막 설치해 청각장애인 초청 공연

12월 20일 늦은 오후,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에는 다른 날엔 보기 힘든 특별한 관객들이 찾아왔다. 명동예술극장과 신한카드 사회봉사팀 ‘아름人’ 주최로 열린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돈키호테 관람’ 행사를 위해 극장을 찾은 청각장애인과 도우미들이었다.

풍차와 한바탕 결전을 치른 돈키호테가 초주검이 돼 드러누워 있다. 시종 산초가 돈키호테의 명에 따라 죽은 사람도 벌떡 일으킨다는 ‘신비의 명약’을 제조한다.

“냄비에 포도주 세 숟가락을 붓고, 후추 약간, 장미꽃 한 송이 그리고… 말린 뱀 혓바닥.”

순조롭던 ‘명약’ 제조는 갑자기 엉뚱한 재료가 튀어나오면서 우스꽝스러워진다. 대사를 알아들은 관객들의 웃음이 터지고 약 1초 뒤 무대 양쪽에 설치된 스크린에 ‘말린 뱀 혓바닥’이라는 자막이 뜨자 다른 관객들 사이에서 ‘까르르’ 하는 웃음이 터진다.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한자리에서 같은 연극을 보며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틀림없다.

명동예술극장과 신한카드 사회봉사팀 ‘아름人’이 준비한 이날 행사에는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삼성농아원, 시립대학종합사회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회에서 온 2백여 명

이순재 씨는 기자간담회에서 “명동예술극장은 젊었을 때 연극을 시작한 곳으로, 꿈과 같은 장소”라면서 “이곳에서 불의에 맞서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인물의 표상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 청각 장애인들과 자원봉사자, 신한카드 '아름人' 팀원들이 참석했다.

대다수가 초중고생인 '특별 손님'들 중 상당수는 이번이 첫 연극 관람이었다. 무대 위 배우들의 연기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잘 들리지 않는' 관객들을 위해 무대 양 옆에는 스크린이 설치됐다.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를 보고 자막으로 대사를 읽으며 연극의 재미에 빠져들었다.

연극 〈돈키호테〉는 일흔일곱의 배우 이순재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이제 더 나이 들면 못 해볼 것 같아서"라며 연극무대에 올라 화제가 된 연극이다. 상연 시간은 중간 휴식시간을 포함해 2시간 40분.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길지 않나 싶었지만 어린 관객들은 TV에서만 보던 이순재 할아버지가 눈앞에서 펼치는 무대 위 코믹 활극과 자막 스크린을 오가느라 지루해할 틈이 없었다.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강건우(17) 학생은 "연극을 처음 봤는데 자막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서툰 어조로 첫 연극 감상의 흥분을 전했다. 아이와 함께 왔다는 오현정 씨도 "'와우(蝸牛)' 같은 청각교정 수술을 받은 아이들은 실내에서의 작은 말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넓은 데서 울리는 소리는 잘 못 듣는다. 하지만 자막 덕분에 감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열린 마음으로 웃어주는 더 뜻깊은 공연이었다"

청각장애인들은 생활수준을 떠나 그동안 음악회나 연극 같은 문화공연 관람에서는 철저한 소외계층이었다. 간혹 수화로 사회를 보거나 내용 일부를 전달하는 공연은 있었으나 긴 대사 전체를 전달하지는 못해 청각장애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전체 공연 내용 중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자막을 통해 일반 관객과 큰 차이 없이 연극 내용을 즐길 수 있었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한 공연은 무대에 선 배우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돈키호테 역의 이순재 씨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해서 자질이나 소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헬런 켈러나 스티븐 호킹 박사같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기 소질을 잘 계발하는 경우도 있다"며 "우리 사회가 그런 것을 발견해주고 잘 키워주는 인프라가 아직 미흡해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희망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바람둥이 '돈 페르난도 공작' 역을 맡은 한윤춘 씨도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관객들이 온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낮에 온 관객들보다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웃어줬다. 뜻깊은 공연이었다"고 말했다.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연극을 관람한 관객들 중에는 직접 표를 구입한 일반 관객들도 있었다. 혹시 자막 스크린이 이들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았을까. 데이트코스로 명동예술극장을 찾았다는 임현길(31) 씨는 "자막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며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연 후에는 출연배우 전원이 로비에서 관객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관객들은 카메라를 꺼내들고 같이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고 '이순재 할아버지'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수염이 진짜냐고 묻기도 했다. G

글 · 남창희 객원기자

연극 〈돈키호테〉

꿈 잃은 현대인 위한 희망 메시지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서 나약함과 두려움에 떨면서도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결단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축복과 영광을 발아래서 찾지 않고, 가슴에서 찾는 자!"

엉터리 갑옷을 입고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 현실주의자면서도 이상을 좇는 주인을 끝까지 섬기는 시골뜨기 농부 산초 판사, 허약한 늙은 말 로시난테…. 세르반테스의 소설로 친숙한 캐릭터들이 무대에 모였다.

국내 연극 최초로 꿈의 무대인 영국 런던 바비컨센터에 초청되는 등 국내외에서 인정받은 실력파 연출가 양정웅 씨의 새로운 해석으로 무대에 오른 이번 연극 〈돈키호테〉는 돈키호테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끝나는 원작의 허무한 엔딩을 변경해 세상 밖으로 나가는 희망의 메시지로 삼았다. "꿈과 이상이 허무맹랑한 말로 들리는 요즘 세상에 돈키호테의 희망적 메시지를 심고 싶었다"는 것이 양 씨의 연출 의도다.

77세의 '노장 돈키호테' 이순재 씨는 노련한 코믹 연기로 젊은 배우들이 보여줄 수 없는 '돈키호테'를 열연해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고도를 기다리며〉, 〈돌아서서 떠나라〉 등 화제작들을 통해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 연극인 한명구 씨도 더블캐스팅으로 '젊은 돈키호테'를 연기한다.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www.MDtheater.or.kr

조영철 기자

이날의 특별공연을 위해 명동예술극장 측은 무대 양옆에 스크린을 따로 설치해 실시간으로 자막을 내보냈다. 평소 대사를 알아듣지 못해 문화공연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청각장애인들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배우들이 전하는 대사 속의 감동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다.

김천소년교도소 뮤지컬 공연 〈우리, 다시!〉

"좌절하지 마, 아직 '꿈'이 있잖아"

문화예술교육이 그늘진 교정시설에 희망을 꽃피우고 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받아온 김천소년교도소는 최근 특별한 뮤지컬 공연을 선보였다. 소년 수형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교정시설 친구들 앞에서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한껏 뽐낸 것. 비록 연기는 어설펐지만 이날 공연은 관객들에게 뜨거운 감동과 일체감을 안겨줬다.

12월 17일 공연 시작을 앞두고 배우들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로 눈빛으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었다.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오자 저마다 '잘할 수 있다'는 다짐이라도 하듯 주먹을 불끈 쥐며 무대에 올랐다.

배우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흥분과 설렘을 안고 가수 김수철의 히트곡 '나도야 간다'를 합창한다.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있나.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 꿈 찾아 사랑 찾아 나도야 간다."

그런데 여느 뮤지컬 공연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단 배우들이 하나같이 머리를 짧게 깎았다. 관객들 옷차림도 똑같고 모두 공연에는 관심 없어 하는 눈치다. 공연 시작부터 춤 동작이 맞지 않아 공연 관계자들은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그 틈을 타 객석에서는 키득키득 웃는 소리도 새어나온다.

소년 수형자들 자신의 과거 돌아보며 가족사랑 고백

이곳은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 무대에 오른 배우는 이곳에 수형 중인 14~23세 소년 수형자 18명이다. 이들 중에는 살

인죄, 특수강도죄로 무거운 형을 받아 수감 중인 앳된 수형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이 자유로운 공간이 아닌 이곳에서 뮤지컬 공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2005년 8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지원사업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2007년부터 각 교정기관별로 문화예술을 접목한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한 것이 계기가 됐다.

'뮤지컬 배우 조승우가 멋있어서', '시간 때울 생각으로', '춤도 추고 노래도 좀 할 줄 알아서' 등 갖가지 이유로 18명의 수형자들이 자발적으로 뮤지컬 배우로 나섰다.

이날 공연은 그들이 5개월 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다. 비록 관객은 같은 수형자들이지만, 관객들 앞에 설 때의 심정은 전문 뮤지컬 배우들과 다르지 않다.

"뮤지컬 공연은 기존 교화 프로그램보다 효과 훨씬 커"

공연 중반쯤에 접어들었을까, 네 팀으로 조를 나눠 각자 가고 싶은 곳을 향해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기차는 중간에 고장으로 멈춰 서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배우들은 '꿈'을 이룰 수 없게 됐다며 깊은 절망감에 빠진다. '여행'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다. 하나 둘씩 독백처럼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루지 못한 계획을 말한다. 모두 자신들의 이야기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말 안 듣고 철없이 행동하던 놈이 정신 못 차리고 놀다 결국 이곳까지 들어와 알게 됐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해보니 사랑한다고 포옹 한번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한OO)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힘을 얻는다.

'여기서 이렇게 죽으나, 가다 죽으나 마찬가지니 걸어서라도 가겠다.'

잠시 일행은 동요하고 술렁이지만 하나 둘씩 함께 떠나기로 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두 다리에 힘을 넣고 먼 곳에 시선을 응시하며 떠나는 이들의 모습은 출전하는 전사들같이 결연하고 의연하다.

처음엔 키득키득 웃던 관객들 속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오며 '멋있다'는 칭찬과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같은 수형시설에 있으면서도 서로 견제하고 무관심했던 그들이 이번 공연을 통해 일체감을 보였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

12월 17일 소년 수형자 18명이 김천소년교도소 대강당 무대에 올라 5개월 동안 준비한 뮤지컬 〈우리, 다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아마추어 배우'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뒤로 모여든 배우들은 세상 부러울 것 없다는 듯 환희에 찬 표정이다.

신OO 군은 "전에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다"며 "지금껏 열심히 준비해온 과정들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뛰어 오르겠다"고 말했다. 신 군은 1년 남은 복역 기간을 잘 끝내고 나가면 떡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귀띔했다.

김천소년교도소 윤종우 소장은 "이번 뮤지컬 공연은 종교 집회나 독서치료 같은 기존의 교화 프로그램보다 효과가 훨씬 좋다"며 "선진화된 치료 기법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번 뮤지컬 사례가 아주 좋은 실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현재 20여 개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30회(60시간)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난해에는 20개 교도소와 8개 소년원학교가, 올해는 22개 교도소와 9개 소년원학교가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받았다. G

글과 사진 · 공감코리아(korea.kr) 제공

연말 선물 '사회적기업 제품' 어때요

DIY키트·공정무역 패션 등 현대홈쇼핑 사회적기업 상품기획전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낸 이들에게 작은 정성을 보이고 싶어지는 요즘이다.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연말연시에 이런 훈훈한 정을 담아 사회적기업 상품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상품을 소개한다.

동아DB

지적장애인들의 자활을 돕는 사회복지법인 위캔은 참살이 음식인 우리밀 고급 쿠키를 생산한다.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좋은 제품을 싸게 사면서 기업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착한 소비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말연시에 더욱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사고 싶어도 판매 경로 부족으로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 들어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워 판로를 뚫을 수 있도록 유통 채널을 확대하는 등 상생경영이 확산되면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일도 쉬워졌다.

이제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꼽히는 사회적기업 제품이 본격적으로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다. 고용노동부와 현대홈쇼핑은 12월 2일 사회적기업의 착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협약(MOU)'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유통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일시적인 판매 촉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현대홈쇼핑의 상호 협력하에 진행된다. 또 1차년도 사업 수행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현대홈쇼핑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협약' 체결

현대홈쇼핑은 자사 온라인, 카탈로그, TV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기획전'을 마련하고 판매수수료를 1백 퍼센트 감면하는 등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단 카드 수수료, 적립금 등 공급업체별 변동비 5~10퍼센트는 부과된다. 또한 공모를 거쳐 선정한 10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전담 MD 배치, 상품몰 입점교육, 품질검사·평가 등 유통 전반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한다.

유통 지원 프로젝트의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으로 총 1억5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

적기업 선정은 주최 측인 고용노동부와 현대홈쇼핑을 포함해 주관단체인 함께일하는재단,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는 '이로운넷'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공정성을 높였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애용될 수 있으나 마케팅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대홈쇼핑의 전문적인 지원으로 국민들이 사회적기업 상품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현대홈쇼핑은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해 '사회적기업 유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참여 선정 과정에 참여한 함께일하는재단의 나현윤 커뮤니케인션팀장도 "선정 기준은 시장성, 안정성, 환경성, 사회적 목적 추구에 부합한 기업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공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살 때 생산자까지 고려하는 소비가 작지만 큰 기부라는 문화적 연대감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의 사회적기업 상품 기획전은 온라인 Hmall에서 먼저 선보이고 있다. 민형동 현대홈쇼핑 대표는 "제품 경쟁력은 있지만 판로가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기업 제품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개되는 유통 채널을 마련했다"면서 "사회적기업에 제품 기획부터 판매전략 수립까지 유통 노하우를 전수해 사회적기업의 자립도를 높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대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위누, 누야하우스 등 10개 사회적기업의 제품은 DIY키트, 천연화장품, 찰보리빵, 수제 소시지 등 핸드메이드 공예품부터 순 우리 먹을거리까지 다양한 상품 아이템을 갖추고 있다.

위누는 수공예로 만든 아트 앤 크래프트 DIY키트 제품을 선보인다. 상품 아이템의 차별성이 뛰어난 상품으로 2007~2008년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크리스마스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누야하우스는 장애인들이 천연화장품 전문업체인 닥터메이드의 기술을 전수받아 1백 퍼센트 자연산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풍부한 인력과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경주시니어클럽의 서라벌찰보리빵은 신토불이(身土不二) 정신으로 순수 국산 재료를 사용하며 방부제, 향신료 등 일체의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전혀 없는 참살이(웰빙) 제품이다.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직배송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나름의 경쟁력이 있다. 경주시니어클럽은 오픈한 지역의 특색에 맞게 어르신들이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조직됐다.

한마음복지문화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적 자활을 돕고 있는 복지단체다. 홈쇼핑에 선보일 제품은 천연수제비누와 천연아로마왁스, 천연화장품 등 자연친화적 상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유통 채널 활용해 사회적기업 상품 판로 확보 지원

청국장 제조업체인 바리의꿈은 연해주 청국장이라는 상품 아이템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실제로 연해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직접 자연농법으로 제조하며, 청국장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 역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콩 등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

재단법인 행복한나눔은 공정무역 커피를 비롯해 북한 함경북도 라진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원료로 한 다리돌 콩된장과 다리돌 간장 등을 국내에 판매해 전 세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지적장애인들의 직업적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위캔은 참살이 음식인 우리밀 고급 쿠키를 생산하고 있으며, 평화의 마을은 제주 농장에서 직접 출하한 돼지에 방부제와 인공 조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허브와 채소를 섞어 만든 고급 수제햄, 소시지 등을 선보이고 있다.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는 국내 최초의 공정무역 패션 브랜드다. 네팔,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자연주의 전통기술로 생산된 친환경 공정무역 의류 및 소품을 판매해 아시아 빈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G

글 · 최은성 객원기자

연탄 한 장 한 장에 사랑을 싣고

SK브로드밴드, 연탄·김장 나눔 등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서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피인터넷'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실종 어린이 및 노인 찾기, 소외이웃에게 다가가는 자원봉사단 활동,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 부문 임직원 50명은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SK브로드밴드는 지역 내 10가구에 연탄 3천 장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까지 함께 전했다.

연탄 3백 장을 받은 번동 주민 강모 씨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연탄이 아까워서 못 때고 있었다"며 "올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SK브로드밴드는 조직별, 지역별로 20개 자원봉사팀을 구성하고, 팀별로 코디네이터가 있어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연탄 나눔 행사를 준비한 주인공은 기업사업 부문 코디네이터인 오재창, 김광석, 양지원 매니저다.

이들은 꼼꼼한 사전답사와 신청자 접수, 인솔은 물론이고 따뜻한 캔 커피와 빵 등 간식까지 준비해 자원봉사자들이 즐겁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재창 매니저는 "소외된 이웃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뜻깊은 하루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1월 30일에는 박인식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임직원들이 서울 중랑구 상봉동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을 찾았다. '아름다운'은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문구용 골판지 포장작업과 과실 원액 생산·판매사업을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이날 박 사장 등 임직원들은 장애인과 함께 골판지 포장작업을 하고, 시설 보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여가 프로그램으로 '싱싱데이(Sing Sing Day)'를 열어 장애인들과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 사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에 참가한 양지혜 매니저는 "장애인과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어두운 분위기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밝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오늘을 계기로 장애인에게 자연스럽게 먼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올해도 'SK 행복 나눔 계절'을 맞아 조직 및 지역 단위로 연탄 나눔, 김장 나눔, 무료급식 등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2월 7일에는 마케팅 부문 임직원 50명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연탄을 전달했고, 12월 9일에는 서초구립 양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적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시설 보수 후원금 전달

이 밖에도 12월에 3회에 걸쳐 서울역 무료 급식, 지역아동센터 2회 체험활동 행사 등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SK브로드밴드는 2008년 SK그룹의 일원이 되면서 공익적 기업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나눔과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2008년 9월 22일 새로운 CI 선포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 선도 기업으로서 인터넷 중독 해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건전한 정보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피인터넷'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이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36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피인터넷 멘터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해피인터넷 멘터'로 선정된

박인식 SK브로드밴드 사장과 임직원들은 11월 30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을 찾아 장애인들과 함께 골판지 포장작업을 했다.

SK브로드밴드 임직원들은 5월부터 7월 초까지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성남 등지의 전국 10개 중학교에서 시간 관리를 위한 멘터링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40명의 해피인터넷 멘터를 양성하고 5월부터 '인터넷 행복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 동안 안성 SK브로드밴드 인재개발원에서 멘터와 멘티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중 쉼터 캠프 형식의 '여름 인터넷 행복학교'를 열기도 했다.

해피인터넷 캠페인의 일환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106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 해지, 변경 등 문의사항이 있을 때 문자메시지나 영상통화로 통신중계서비스센터에 연결해 106번으로 통신중계를 요청하면 실시간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인터넷 행복학교' 자원봉사

또한 SK브로드밴드는 Btv에서 '미아 찾기'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실종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Btv 고객들이 실종 어린이 찾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Btv를 통해 미아가 소개될 때 고객이 바로가기(리모컨의 빨간색 버튼)를 누르면 해당 미아의 사진과 신체특징 등을 소개하는 팝업이 떠 상세정보를 볼 수 있다. 미아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실종 어린이 전문기관(전화 02-777-0182) 또는 경찰청(국번 없이 182)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 밖에도 지구촌 기아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식량 등을

SK브로드밴드 기업사업 부문 임직원들은 11월 24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했다.

지원하는 민간 구호단체인 '기아대책'과 협력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구촌 행복한 홈스쿨'을 후원했다. '행복한 홈스쿨'은 빈곤 결손가정 어린이가 방과 후에 저녁 식사와 교육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기아대책이 전국에 7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기금 3천만원을 지구촌 행복한 홈스쿨의 연간 운영비로 기아대책에 전달한 것 외에도 42인치 LCD TV 및 장식장, Btv를 기증하고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무료 서비스하고 있다. IPTV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SK브로드밴드 이상헌 CR전략실장은 "SK브로드밴드의 사업 특성을 살린 해피인터넷, 해피IPTV 캠페인을 확대 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이웃과 지역사회,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소망을 말해봐~"

서울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파란 우체통, 소망 들어주는 희망 메신저

마음속으로 상상만 했던 소원을 이뤄주는 '파란 우체통'이 등장했다. 지난 10월 9일 서울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 앞에 자리 잡은 이 우체통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지역민의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매번 사촌 언니, 형에게 옷을 물려 입는 두 아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새 코트 한 벌 입혀주고 싶습니다."(최경수·가명·39)

"남편이 실직을 하는 바람에 좁은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욕조가 없는 집에서 아이들을 목욕시키기가 쉽지 않네요. 욕실이 좁아서 이동식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박지혜·가명·34)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혼자 힘으로 이루기 어려운 소망이 될 수 있다. 지난 11월 중순 서울 관악구 중앙사회복지관에 접수된 최 씨와 박 씨의 사연이 대표적이다. 관악 소망우체통에 들어온 이 소망을 이뤄주기 위해 중앙사회복지관은 직접 당사자와 면담을 했다.

이 둘은 부부였다.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워져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30대 부부는 소망우체통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의 소망을 하나씩 적어냈다.

소망솔루션위원회는 후원자 소식지에 이 같은 사연을 실었고, 지역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을 직접 방문하며 후원자를 찾았다. 그 결과 집에서 쓰지 않는 이동식 욕조를 기증하겠다는 후원자가 나왔고, 지역 쇼핑몰의 한 아동복 가게에서 남매에게 겨울옷을 선물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중앙사회복지관 앞 파란 우체통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망 성취활동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10월 9일 설치됐다. 복지관을 이용하던 한 어르신이 '죽기 전에 어렸을 적 내게 도움을 줬던 친구를 찾고 싶다'는 내용을 적어 복지관 건의함에 넣었던 것이 그 발단이 됐다.

중앙사회복지관 김한별 기획팀장은 "지역복지관은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며 "혼자 이뤄내기는 힘들지만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민이 힘을 모으면 그 바람들을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존 빨간색 우체통 대신 파란색 우체통을 만들었다. 파란색이 상징하는 '희망', '파랑새'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자는 취지에서다.

지역사회 협력·참여 통해 지역주민의 소망 들어줘

소망우체통의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관악구 거주자가 소망엽서를 작성해서 복지관 앞에 설치된 파란 우체통에 넣으면 복지관은 사연을 모아 1차 선정을 거쳐 소망솔루션위원회에 보낸다.

소망솔루션위원회는 소망우체통 사업을 지원하는 관악구의회, 관악구 복지정책과, 관악구의사회, 국민연금공단, 에그옐로우 쇼핑몰 대표 위원회, 천주교 중앙동 교회,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관악신문, 관악 FM, 중앙사회복지관 등 10개 민관 단체 대표들이 모인 회의다.

소망솔루션위원회는 우체통이 설치되기 두 달 전부터 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예비 후원자들을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차 선정에서 소망솔루션위원회는 최종 사연을 뽑는다. 이때 기준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점과 미래지향성 여부다. 즉 소망을 들어줬을 때 이것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

중앙사회복지관

소망을 적은 엽서를 파란 우체통에 넣고 있는 어린이들.

조영철 기자

니라 가족이나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급한 사연도 우선적으로 뽑는다. 이렇게 선정된 사연에 대해서는 소망솔루션추진단이 면담한 뒤 후원자를 발굴해 최종적으로 소망을 들어준다.

'파란 우체통'에 사연이 접수되면 요청한 소망뿐 아니라 상담을 통해 다른 생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최근 소망 성취를 완료한 사연 중 하나는 '몸이 아픈데 치료비 감면을 할 수 없느냐'는 67세 노인의 사연이었다.

현행법상 개인병원이 임의대로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래서 중앙사회복지관은 보건소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어르신과의 상담 중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게 됐고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구직활동도 할 수 있게 도왔다.

파란 우체통이 설치된 이후 지난 12월 23일까지 모인 사연은 1백44 건 정도다. 사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가족의 건강이나 행복,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단순 희망 사연이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게임기나 스마트폰을 사달라는 구매 희망 사연도 많았다.

지역과 관련된 민원도 종종 들어온다. 이 경우 중앙사회복지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해당 팀에 전달하고,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리해서 공문을 보낸다. '구립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다', '구립 어린이집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소망들도 얼마 전 접수됐다.

파란 우체통은 원칙적으로 지역민에 한해 소망엽서를 받고 있지만 얼마 전 중앙사회복지관 앞으로 대구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파란 우체통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접한 한 수감자가 '80세 노모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표값이 없어서 늘 같은 수감자들에게 신세를 진다'는 내용을 보내왔던 것.

중앙사회복지관은 당사자와 그 어머니가 관악구민은 아니지만 이런 특수한 소망들도 들어주면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 '집에 있는 안 쓰는 우표를 모으자'는 내용으로 후원자들에게 연락했고 우체국과도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망 성취활동을 돕자는 뜻에서 지난 10월 초 마련된 파란 우체통은 관악구 거주자라면 누구나 소망엽서를 설치된 파란 우체통에 넣고 소망솔루션위원회의 조처를 기다리면 된다.

파란 우체통에 대한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접수되는 소망들로 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후원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다.

김한별 기획팀장은 "소망을 이룬 당사자들 역시 다음번엔 자신이 물건 기증자나 후원자로 나서기로 약속하지만 여전히 후원의 손길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망을 이루는 파란 우체통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중앙사회복지관 ☎ 02-872-5802 causwc.or.kr

6명의 자녀를 입양한 윤정희 씨에게는 아이들이 대가족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게 기쁨이다. 윤 씨는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자녀 한 명 늘 때마다 행복은 배가 돼요”

우리 아이 행복 체험수기 공모전… 11편 수상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인생도 깊어진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행복을 느끼는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화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우리 아이 행복 체험수기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들은 자녀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6일 ‘우리 아이 행복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자녀를 키우며 경험한 감동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백 22편이 응모해 대상 1편, 우수상 10편 등 1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은 자녀가 주는 행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조혜실 사무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가적인 손실’이나 ‘위기’로 접근하기보다는 아이가 가족에게 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자녀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아이 낳기’라는 글로 대상을 받은 윤혜숙(41) 씨는 3년 전 막내 예서를 입양하며 2남2녀의 엄마가 됐다. 다산과 입양으로 네 자녀를 얻은 윤 씨네는 동네에서 ‘아이 넷 있는 집’으로 유명하다.

결혼 초기만 해도 윤 씨 부부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우기도 빠듯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경제적 여유가 아닌 마음의 여유로 자녀 키워야”

다산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부에게 셋째가 생겼지만 둘째를 낳은 후 6년 만의 임신에다 입덧도 심했다. 또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는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윤 씨는 ‘힘들다’고 느낀 순간보다 ‘행복하다’, ‘낳길 잘했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동생이 생기니

세 아이를 낳은 후 막내를 입양한 윤혜숙 씨는 아이는 경제적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딸이 더 의젓해졌고,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행복은 두 배 이상 커진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예서를 입양할 때는 가족들의 힘이 컸다. 가슴으로 낳은 막내아이를 배 아파 낳은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를 수 있을지, 생활비와 학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 윤 씨에게 남편도 아이들도 서로 돕겠다고 나서며 힘을 보탰다.

수상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보다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눈에 띄게 밝아지는 윤 씨는 "형제가 많으니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되고, 서로 위해주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큰 선물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씨는 "얼마 전 쌍둥이들은 입양이 잘 안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접한 후 '쌍둥이를 입양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부부들이 많지만 아이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사연들은 입양, 다산뿐 아니라 난임, 다문화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프랑스인 남편과 국제결혼을 한 김은영(34) 씨는 출산한 후 산후조리부터 너무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다. 그때 겪었던 갈등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글로 풀어냈다.

김 씨는 "아이가 태어나면 꽁꽁 싸서 키우는 우리나라와 반대로 프랑스는 아이를 풀어서 키우고, 재울 때도 따로 재운다. 사소한 것부터 너무 달라 남편과 부딪치기도 했지만 육아를 통해 서로의 다른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며 "수기를 쓰면서 다시 한 번 출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고 말했다.

세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출산의 기쁨을 얻게 된 것과 같이 가슴 찡한 사연들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혼전 임신으로 출산을 할 때까지 아이를 포기할 생각을 했던 어린 미혼부부가 결국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한 가정을 이루고, 둘째아이까지 출산하는 과정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고 6명의 자녀를 모두 가슴으로 낳아 기른 윤정희(45) 씨의 사연도 눈에 띈다. 윤 씨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가장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상처를 받고 버려지는 게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부부가 마음을 모아 상처 입은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으면 좋겠다고 뜻을 함께했다.

그때 친자매인 두 딸을 만나 지금의 대가족을 이루는 시발점이 됐다. 몸이 약한 둘째 딸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면서 건강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부부는 계속해서 입양과 양육의 기쁨을 이어가기로 했다.

"입양가정 호적신고 시 다른 규정 적용했으면…"

막내아들 둘은 같은 해에 태어난 8월생과 10월생으로 쌍둥이로 호적에 올렸다. 하지만 신생아가 아닌 아이들을 호적에 올릴 때는 출생신고 기간이 지나 벌금을 내야 했다. 윤 씨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못하는 일을 개인이 하는 것인데 입양가정에서 호적신고를 할 때는 다른 규정을 적용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윤 씨의 다자녀, 대가족 이야기는 올해 5월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라는 제목의 책으로도 소개됐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서는 엄마들뿐 아니라 아빠들의 참여도 두드러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임성남 씨는 5남3녀를 키우며 겪은 에피소드들로 주목을 받았다.

임 씨는 자녀의 친구들에게 할아버지로 오해받은 뒤 염색도 하고 젊어 보이려는 노력을 한창 기울이고 있다는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써내려가며 "다둥이 부모로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젊게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민간자격증 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수강 신청 전 반드시 민간자격 등록·공인 여부 확인해야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취업 보장을 약속하는 자격증만큼 귀가 솔깃해지는 것도 없다. 그런데 미등록 자격이거나 미공인 자격임에도 국가공인 자격 또는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전북에 사는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노인심리상담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58만원을 마련해 교육기관에 지불했다. 장래가 유망한 국가공인 자격증이라는 교육기관의 광고와 설명을 믿었기에 교재비 수십만원은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뒤늦게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경북에 사는 최모 씨는 지난해 가을, 장례지도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1백 퍼센트 보장된다는 교육기관의 설명을 듣고 교재비 등으로 81만원을 썼다. 최 씨는 어렵게 공부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일자리를 얻는 데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당초 취업 보장을 약속했던 교육기관이 그런 일이 없다고 잡아떼는 통에 최 씨는 교재비 수십만원은 물론이고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한 것 같아 낙심하고 있다.

일러스트 · 문지혜

국가에서 공인받은 민간자격은 수화통역사 등 86개

최근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미끼로 피해를 끼치는 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1천5백31건, 2009년 1천6백22건에 이어 올해는 10월 말까지 1천7백8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로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동원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재 민간자격증과 관련한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26개 사업자를 조사 중에 있다"며 "이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더불어 향후 소비자모니터 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자격증 관련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때에 1백 퍼센트 취업 보장이 사실일까 미심쩍으면서도 여러 군데에 떳떳하게 국가공인이라고 광고를 내는 곳이라면 믿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자격증은 자격 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 민간자격에는 등록 자격과 미등록 자격이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등록 자격 중 일부만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현재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사, 기능사, 공인노무사 등 6백87개에 달하며, 민간자격은 2천여 개로 추정된다.

민간자격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등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신설 금지 분야(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를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신설해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민간자격 2천여 개 중 현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것은 1천3백54개. 이 중 국가에서 공인받은 것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수화통역사 등 86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개인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지 여부와 자격의 검정 기준과 검정 과목, 응시 자격 등 검정 수준을 조사하며 주무 부처에서 그 결과를 검토 심의해 최종 결정한다.

민간자격의 '등록' 및 '공인' 여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 중인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경우, 섣불리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및 공인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주의할 점은 등록된 민간자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별도로 인정하거나 공신력 등을 부여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민간자격 등록은 신설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가 있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처리가 된다.

'고소득 보장' '고소득 평생직장' 과장광고 가능성 높아

따라서 '국가 민간자격으로 승인', '공식 인정되고 승인받은'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자격증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공인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국가공인 승인'이라는 표현하에 공인 자격과 미공인 자격을 함께 나열해 모두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국가기술자격 ○○등급' '기술사급 해당'이라고 표현해 단순 등록된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동급인 것처럼 다룬 광고에도 현혹돼서는 안 된다.

동아DB

최근 서울 안암동 고려대 화정체육관에 걸린 베스트 입사지원서. 이 샘플 이력서에는 자격증란이 마련돼 있지만 국가가 공인하지 않은 민간자격증은 기입해도 소용이 없다.

민간자격의 교육 및 시험을 관리하는 곳이 대부분 민간단체인 만큼 '○○교육원' '○○연수원' '○○개발원' '○○인증원' 같은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민간자격증 허위·과장 광고를 믿다 피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제의 업체들이 뒤늦게나마 자격증을 취득해 사회에 진출해보려는 사람들을 노리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거나 우대하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

'고소득 보장', '고소득 평생직장' 같은 광고도 근거 없는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심 분야 취업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지도 거듭 확인해봐야 한다. '○○ 활동 시 자격증 없으면 제한이 있음' 같은 표현으로 없어도 되는 자격증을 꼭 필요한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안전, 국방과 관련된 분야는 민간자격 금지 분야이므로 자격증이 있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거짓이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통해 '등록' 혹은 '공인' 자격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취업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으니 자격증 취득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초중고 교사로 취업', '행정공무원으로 취업' 같은 문구만 믿고 돈과 시간을 투자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자격증 관련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G

글 · 구미화 객원기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www.pqi.or.kr
소비자상담센터 ☎1372

"가정경제, 주부들이 나섰다"

주부 1인 창업 지원하는 기관들

가정의 틀을 벗어나 사회에서 자신의 능력을 살리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혹은 계속되는 불경기 속에서 가계를 살리기 위해 1인 창업을 모색하는 주부들이 늘고 있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가정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부 1인 창업 지원기관들을 알아봤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의 창업과 기업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실전 창업스쿨'을 운영해 1인 기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유용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데, 파티플래너, 공예, 에스테티션, 두피케어테라피, 웰빙떡카페, 커피전문점, 미술심리치료, 북아트지도사, 웰빙플라워 등 유망 업종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 후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과 네트워킹 지원이 이뤄져 사업 초보자들에게 훌륭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준다.

또한 여성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창업 2년 미만의 여성 기업인에 대해 보증금 3백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해준다. 인터넷 전용선과 기본적인 사무기기 제공은 기본이고 원하는 입주자에게는 경영, 세무회계, 자금 조달, 교육 프로그램 참가,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www.wacademy.co.kr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격증 및 취업 준비 교육을 비롯해 각종 전문 심화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취업 경력개발교육은 강좌별로 보통 3개월에 걸쳐 이뤄지며 수강

동아DB

창업을 하고 싶지만 육아와 가사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쉽게 나서지 못하는 주부들을 위해 서울시 맘프러너 창업스쿨에서는 다양한 강의를 마련해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료도 저렴한 편이다.

특히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지 2년 이내의 신규 여성 창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창업 경험 및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도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입주자에게는 회계, 경영, 마케팅 등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노하우 등의 교육 기회와 전문 창업 컨설턴트의 일대일 맞춤형 지도가 제공된다. 이미 1인 기업으로 성공한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류도 할 수 있다. wrd.seoulwomen.or.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시 창조산업 육성 지원 전문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창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육아 등의 제약으로 고민하는 주부들을 위해 온라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인 '맘프러너 창업스쿨'을 통해 주부 창업을 지원한다.

'엄마(Mom)'와 '기업가(Entrepreneur)'의 합성어로, 우리말로는 주부 사업가 또는 엄마 사장님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맘프러너는 영미권에서는 일반화된 경제용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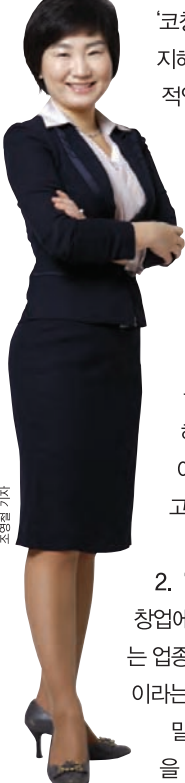
외식업 창업과정, 유통업 창업과정, 인터넷 창업과정 등 창업 전반에 관한 교육부터 수지침, 리폼, 천연화장품, 북아트, 네일아트, 토피어리 등의 기술교육과 세무·회계, 변리특허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등 창업에 필요한 과정들을 차근차근 익혀나갈 수 있도록 알찬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 수료 후에는 신청자에 한해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하며, '소상공인 창업자금 특별보증'을 통해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G edumom.seoul.kr

글 · 이소연 객원기자

김지혜 대표가 말하는 1인 창업 성공 비결

"힘들 땐 아줌마 정신 되새겨야"

"같은 일이라도 단순히 부업으로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활동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 수입이 적다고 해도 멀리 내다보고 1인 창업을 하도록 권합니다."

'코칭 전문가'로 활동 중인 1인 기업 '코칭코리아'의 김지혜(32) 대표는 "업무성과를 계속 축적해나가거나 외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고객들에게 전문성과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1인 창업으로 기업 형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한다. 1인 기업가로 활동 중인 주부 사업가인 김 대표에게서 1인 창업의 성공 비결에 대해 들었다.

조영철 기자

1. 숙고의 과정을 가져라

처음부터 자신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탐색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주변의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아이템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2. '트렌드'가 아닌 '니즈'를 따져 아이템을 정한다

창업에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말하는 '뜬다'는 업종을 선택한다. 유망한 업종을 고르면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안이한 마음에서 오는 실패다. 남들이 유망하다고 말하는 업종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업종을 골라야 한다.

3. 사업계획서를 써라

많은 주부들이 사업계획서 쓰기를 두려워한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사업계획서는 내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다. 이 과정을 생각하면 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4.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받는다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자. 요즘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좋다. 까다롭고 헷갈리는 사업계획서 작성법, 사업자등록, 세금 계산 등 실무도 창업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으니 준비에 대한 부담이 한결 줄어든다.

5.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라

사무실 임대부터 경비 제공까지 1인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업 초기비용을 줄이거나 전문 컨설턴트의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원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네트워크가 초보사업가에겐 큰 재산이 된다.

6. 힘이 들 땐 '아줌마 정신'을 되새기자

가정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책임감도 남다르고 무슨 일이든 상의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파트너가 있다는 점도 큰 힘이 된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통해 부모에게서 정신적으로 독립한 경험이 있는 만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에 책임을 지는 연습이 돼 있다는 점도 주부의 강점이다.

운동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복부비만을 주의해야 한다. 평소 자신의 체질량지수를 측정해 비만도를 점검하고, 틈틈이 스트레칭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한잔한잔 술에 당신의 배는 볼록볼록

회식 잦은 연말연시 늦은 시각까지 갖는 술자리는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

직장인들에게 연말연시는 복부비만 주의보가 내려지는 시기다. 잦은 회식과 모임 등으로 과식하거나 음주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뱃살 쌓이는 걸 포기하지 말고 틈틈이 주의해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5년차 회사원 김인호(가명 · 32) 씨는 항상 '오늘부터 운동해야지'라고 결심하지만 퇴근 후 집에 가서 누워 있기 일쑤다. 야근이나 저녁 약속도 잦아 운동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배는 더부룩해지고, 몸은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말연시는 잦은 회식과 망년회 등 술자리까지 많아 비만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염려되고 있다.

이렇듯 활동량이나 운동 시간은 적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들에게는 비만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망년회처럼 늦은 시각까지 이뤄지는 회식은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비만율은 34퍼센트에 달한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연령인 30~50대 남성, 나이 든 50~60대 여성의 비만율이 각각 40퍼센트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특히 운동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의 건강과 비만 예방을 위해 앞장섰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직장인 대상 비만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것. LG생명과학, 필립스, 삼성생명콜센터 등 기업체 4곳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만도 측정, 영양 · 운동 상담, 일일 계단 걷기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30~50대 남성 비만율 40%로 심각

이 캠페인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비만 바로 알기〉 책자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에게 비만 예방 팁을 알려줬다. 〈비만 바로 알기〉는 바른 식사요법, 행동수정요법 등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인터넷과 서적 등에 제공되는 비만 관련 정보 60가지도 제공한다. 현재 e-북으로 건강다이어리(diary.hp.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음은 〈비만 바로 알기〉의 핵심 내용이다.

직장인 복부비만 예방을 위한 바른 생활법

뱃살은 단순히 외관상 문제를 넘어 성인병, 심혈관 질환 등을 일으켜 건강에 치명적이다. 체질량지수를 측정해 자신의 비만도를 점검하고, 전신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몸을 자주 보는 것도 비만 예방에 좋은 방법이다. 이 밖에 생활 속에서 직장인들이 복부비만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1 식사는 고단백, 저지방으로

이론적으로 체지방 1킬로그램을 줄이려면 7천2백 킬로칼로리를 줄여야 한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이 필수다. 닭 가슴살이나 달걀 등 고단백, 저지방 위주 식단을 짜고, 토마토나 사과 등 혈당지수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빵, 초콜릿, 탄산음료 등 혈당지수가 높은 간식거리는 되도록 적게 섭취한다.

2 야식은 금물!

낮에는 인체 교감신경의 기능이 활발해 에너지 소비가 잘 이뤄지지만 밤에는 인체의 부교감신경계가 활발해 체내 영양소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기에 같은 양,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밤이면 살이 찌기 쉽다. 건강을 위해 야식의 유혹을 참는 것이 좋다.

3 몸 많이 움직이기

조깅, 수영, 줄넘기 같은 운동은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러한 운동을 하루 최소 30분씩 하는 것이 효과적. 회사 내에서도 짬짬이 체조를 해 몸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찌뿌드드한 몸이 상쾌해질 수 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등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고, 앉아서 근무하거나 서 있을 때 허리를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줘 긴장감을 주는 바른 자세를 생활화하는 것도 비만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4 술과 담배 자제하기

알코올은 고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식욕을 증가시켜 안주에 계속 손이 가게 하는 등 과식하게 만든다. 술은 종류를 막론하고 한 번에 2, 3잔 정도로 자제해야 한다. 담배 속 니코틴은 체내 지방을 배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아드레날린과 분자 구조가 비슷해 음주에 흡연까지 곁들여지면 뱃살은 더욱 늘게 된다. 따라서 담배를 줄이거나 금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G

글 · 김진경 객원기자 / 참고도서 · 보건복지부 〈비만 바로 알기〉

복부비만도 계산법

허리 둘레÷엉덩이 둘레=복부비만도

엉덩이 둘레를 잴 때는 엉덩이 부분 중 가장 튀어나온 부위를 기준으로 잰다. 허리 둘레는 배꼽 아래 2센티미터 지점을 기준으로 잰다. 보통 남자는 36인치 이상, 여자는 32인치 이상일 때 복부비만에 속한다. 복부비만도를 계산했을 때 남자가 1.0 이상, 여자가 0.8~0.9 이상 나오면 내장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다.

복부비만 줄이는 체조법

틈틈이 하면 뱃살이 쏘옥~

등과 배 스트레칭

양팔을 펴고 상체를 앞으로 내밀며 다리를 쭉 뻗는다. 바른 자세로 앉아 다시 다리를 뻗는다. 상체를 깊숙이 굽혔다 편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

등 뒤로 깍지를 낀다. 견갑골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힘을 주고, 잡아당기면서 팔을 위 아래로 10회 움직인다.

어깨 스트레칭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고 어깨를 귀쪽으로 들어올린다. 5초간 유지한 후 힘을 빼고,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한다.

발차기 스트레칭

주먹을 가볍게 쥐고 두 팔을 가슴 앞에 둔 후 한쪽 발을 뒤로 내딛는다. 그 자세로 제자리에서 가볍게 4번 뛴 후 다른 쪽 발을 앞으로 차준다. 제자리에서 한 번 뛰면서 양팔을 뻗었다가 모아준다. 같은 방법으로 발의 방향을 바꿔 똑같이 실행한다.

동아DB

웹사이트 접속 또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에 스마트폰이 오작동하거나 바탕화면이 바뀌고 저장된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등 이상을 보이면 악성코드에 의한 감염일 수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단말기를 치료해야 한다.

내 스마트폰 안전하게 지키려면…

악성코드 감염·정보 유출 등 무선랜 보안 이용자 안전수칙

스마트폰, 갤럭시 탭, 아이패드 등 최신 기기들의 등장으로 무선랜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코드 감염, 정보 유출 등 부작용도 늘면서 무선랜 보안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편리한 무선랜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이용자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기 오작동, 다운로드 등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면서 개인용 컴퓨터(PC)를 대상으로 하던 악성코드의 공격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그 세를 확장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변조, 금전적 피해, 기기 오작동,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심한 경우 단말기가 '좀비' 스마트폰이 되어 자신도 모르게 해커에 의해 조종되거나 디도스(DDoS) 등의 공격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안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 11월 열린 통합 정보보호 구축전략 컨퍼런스인 'ISEC 2010'에선 특이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스마트폰 뱅킹 해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실연으로 입증한 것이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에 감염된 악성코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과 문자메시지 가로채기를 이용해 소액결제 해킹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안 설정만 제대로 하면 개인정보 유출 막을 수 있어"

이 같은 무선랜의 해킹 위험에 대해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 단장은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랜의 특성상 뜻하지 않게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무선랜에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악성코드를 심어 단말기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심할 경우 지난해 7월에 발생해 청와대 등 국내외 26개 사이트를 마비시키며 인터넷뱅킹 장애 등의 혼란을 가져왔던 '7.7 디도스 대란'처럼 악의적인 사용자가 접속해 악성코드나 스팸의 유포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선 패스워드 입력 등 사전에 보안이 설정된 무선랜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에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다면 최상위급 암호화 보안기술인 'WPA2'를 적용하면 된다.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 외의 장소나 보안 설정이 없는 무선랜을 이용하게 될 경우엔 금융거래나 인터넷 결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뢰할 수 없는 응용프로그램 내려받지 말아야"

전문 전자결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중소형 쇼핑몰에서 상거래를 할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보안이 설정되지 않은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안 설정만 제대로 해두면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이 단장은 말한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이 단장은 "단말기를 분실했다가 되찾았을 경우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고 경고한다. 남들이 알기 쉬운 생일이나 전화번호, 제품 출시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비밀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다.

멀티미디어 메시지(MMS)나 e메일의 첨부파일을 통해서도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니 발신인이 불분명하다면 읽지 않고 바로 삭제하고, 파일을 내려받기 전에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전용 백신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타인의 무선랜 무단사용도 경계 대상이다. 외부인이 자신도 모르게 무선랜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이 느려질 뿐 아니라 외부인의 불법행위로 의도하지 않게 자신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개인 무선랜에 보안 설정을 해 자신의 무선랜이 불법행위에 활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의 보안 취약성이 지적되면서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에서는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보안기능이 제공돼 안심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 구형 제품의 경우에도 최신 운영체제로 업데이트를 하면 최신 기기 못지않은 보안 설정이 가능해진다.

이재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융합단장은 "보안 설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지키고 무선랜 해킹 위험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제공된 운영체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말이다. 일명 '탈옥(아이폰)'이나 '루팅(안드로이드폰)'으로 제조사가 정해놓은 설정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미 탈옥이나 루팅을 한 사용자라면 자신의 스마트폰 보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응용프로그램은 내려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단장은 "해커들은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에 잡히지 않고도 남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공격기법을 찾아내는 만큼 수시로 운영체제와 백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118.or.kr

스마트폰 이용자 10대 안전수칙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이동통신사, 기기 제조사, 백신 및 보안업체, 모바일 앱 개발사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 합동대응반'은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스로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10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① 의심스러운 애플리케이션은 내려받지 않는다.
②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다.
③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e메일은 삭제한다.
④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⑤ 블루투스 기능 등 무선 인터페이스는 사용할 때만 켜놓는다.
⑥ 이상증상이 지속될 경우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⑦ 내려받은 파일은 바이러스 유무를 검사한 후 사용한다.
⑧ PC에도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⑨ 스마트폰 플랫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
⑩ 운영체제 및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다.

철원 쇠둘레 평화누리길

한탄강 물길 따라 걸으며 평화의 날을 꿈꾸다

민통선 내 철원평야에서 만난 고라니.

강원 철원 땅에는 한탄강이 흐른다. 북녘의 평강 황성산에서 발원해 철원군과 포천시 등을 거쳐 경기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강이다. 길이 1백36킬로미터, 평균 강폭 60미터의 한탄강은 평강과 철원 지방을 중심으로 방대하게 펼쳐진 용암대지 위를 흐르면서 직탕폭포, 고석정, 순담계곡 등의 경승지를 빚어놓았다.

예부터 큰여울, 한여울, 섬내, 대탄(大灘) 등으로도 불려온 한탄강(漢灘江)은 광복 이후 '한탄강'(恨嘆江)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광복 직후 38선이 그어지자 이 강은 그대로 남북을 분단하는 경계선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6·25전쟁 당시에는 남북 간의 치열한 교전이 곳곳에서 벌어져 온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기도 했다.

한탄강이 굽이쳐 흐르는 철원군에는 최근 한탄강을 따라가는 걷기 코스가 개발됐다. 한여울길이 그것이다. 한탄강의 절경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이 길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문화생태 탐방로 중 하나인 '쇠둘레 평화누리길'의 1코스에 속한다. '쇠둘레'는 철원(鐵原, 또는 鐵圓)의 순우리말 이름이다.

2코스인 '금강산 가는 길'은 1931년에 개통된 옛 금강산전철의 일부 구간을 통과해서 붙은 이름이다. 옛 경원선 철도의

한탄강 최고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고석정의 설경.

주요 경유지였던 철원은 전체 길이 1백16.6킬로미터의 금강산전철이 출발하는 곳이기도 했다. 금강산 가는 길은 자연 풍광보다는 옛 이야기를 더듬는 길이다.

현재 한여울길은 승일교에서 직탕폭포까지 4.8킬로미터 구간만 정비돼 있다. 1코스의 나머지 구간과 2코스의 전체 구간은 이정표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이다. 현재 상태로도 걷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길이 평탄해서 사람을 숨 가쁘게 하거나 걸음을 더디게 만드는 구간은 거의 없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정표 설치와 코스 정비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2월부터나 초행인 사람들도 길을 헷갈리지 않고 1, 2코스 전체를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꺽정 전설이 살아 있는 고석정

한여울길은 승일교 옆 승일공원에서 시작된다. 콘크리트 다리인 승일교의 이름은 이승만과 김일성의 이름 가운데에서 한 자씩 따서 지었다고 한다. 철원은 광복이 된 후로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 땅에 속했다. 그때 다리 건설공사가 시작됐고 철원이 남한 땅에 속하게 된 6·25전쟁 이후에 완공됐다.

한편으로는 전쟁 당시 큰 전공을 세웠다는 박승일(朴昇日) 대령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하고, '김일성을 이기자'는 뜻에서 승일교(勝日橋)라 명명했다는 설도 있다. 아무튼 오늘날 승일교는 사람의 통행만 가능하고, 차량은 바로 옆에 새로 가설된 한탄대교를 이용한다.

등록문화재 제22호인 옛 노동당사 건물.

승일교를 건너 철원읍 방면으로 1킬로미터쯤 가면 한탄강 최고의 절경으로 꼽히는 고석정 입구에 당도한다. 원래 고석정은 한탄강변의 작은 정자지만, 오늘날에는 그 일대의 빼어난 풍광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고석정 일대의 절경을 두고 고려 때 무외(無畏)라는 스님은 이런 글을 남겼다.

"철원군 남쪽 만보쯤 되는 거리에 큰 바위(고석바위)가 우뚝 솟은 고석정이 있는데, 높이는 거의 3백 척이나 되고 둘레는 십여 길이나 된다.… 또 큰 여울이 굽이쳐 흐르며 벼랑에 부딪치고 돌 굴리는 소리가 여러 악기를 한꺼번에 연주하는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직탕폭포의 겨울 풍경.

것과 같다. 고석바위 아래에는 깊이 팬 못(淵)이 있어 내려다보면 다리가 절로 떨리고 그 속에는 신물(神物)이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 풍광이 맑고 서늘하고 기이하여 비록 문장이 뛰어나거나 그림 솜씨가 빼어난 자라도 표현하기가 난망할 것이다….”

고석정은 임꺽정에 관한 전설이 얽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임꺽정은 수하들을 이끌고 고석정 건너편에 쌓은 철옹성을 근거지로 삼아 함경도 관아에서 조정에 상납하는 공물(貢物)을 약탈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임꺽정을 생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하지만 고석바위의 작은 굴에 은거하던 임꺽정은 관군이 들이닥칠 때마다 꺽지로 변신해서 물속으로 숨어버리곤 했다고 전해온다.

고석정 입구를 지나온 한여울길은 드넓은 철원평야를 가로지른다. 오른쪽으로는 움푹 꺼진 한탄강을 굽어보며 걷는다. 철원평야 한복판을 흐르는 한탄강의 물길은 지면과 엇비슷한 높이로 흐르는 여느 강들과는 달리 움푹 꺼져 들어가 있다. 30~40미터 깊이로 깎인 한탄강의 협곡은 수직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미국의 그랜드캐니언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여울목과 소(沼)가 많아서 물살도 매우 빠른 편이다. 그래서 직탕폭포와 군탄교 사이의 한탄강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주말과 휴일이면 수많은 래프팅 보트들이 줄지어 내려가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한다.

한탄강의 양안(兩岸) 절벽에는 주상절리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고석정과 직탕폭포 사이에 위치한 송대소는 6각형의 현무암 돌기둥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진풍경을 보여준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는 별명이 붙은 직탕폭포 주변에도 주상절리대가 발달해 있다. 하지만 높이 3미터, 폭 80미터 규모의 폭포 전체가 거대한 얼음폭포로 변하는 겨울철에는 주상절리대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직탕폭포 주변 빼어난 주상절리대 발달

철원까지 와서 1코스의 일부분만 걷고 돌아가기 아쉽다면, 도피안사(倒彼岸寺)나 노동당사 같은 2코스의 몇몇 경유지를 미리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관음동 마을에 위치한 도피안사는 신라 때 창건됐다는 고찰이다. 6·25전쟁 당시 큰 피해를 본 데다 한동안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쪽에 있어서 긴 내력에 비해 규모는 소박한 편이다. 덕분에 산사다운 고즈넉함이 오롯이 살아 있다.

이곳의 대적광전에는 철조비로자나불상(국보 제63호)이 봉안돼 있다. 불상의 등에 새겨진 조성기(造成記)에 따르면, 865년에 철원 지방의 신도 1천5백명의 발원으로 조성된 철불이라고 한다. 하지만 개금불사를 해놓은 바람에 철불 특유의

민통선 내 철원평야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찾는 두루미 한 쌍.

코스 정보

1코스(한여울길) / 11킬로미터, 3시간 소요

승일공원→승일교→고석정→마당바위→송대소→태봉대교(번지점프장)→직탕폭포→무당소→오덕리(금을고지)→칠만암

2코스(금강산 가는 길) / 16킬로미터, 5시간 소요

오덕리(금을고지)→학저수지→도피안사→노동당사→새우젓고개→일제강점기 수도국지→피바위→상허 이태준 생가 터→금강산 철교→율이리(용담)

예비 코스(근대문화 유적길) / 민통선 내 위치

민통선 초소→얼음창고→옛 철원역사→철새 도래지→월정리역→철원 평화문화광장→철원 평화전망대→아이스크림고지→오덕리

※ 예비 코스는 고석정 관광지 내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를 통해 출입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현재까지 민통선 내 관광객 출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문의 **철원군청 관광개발계 ☎ 033-450-5534**
철의삼각전적지 관광사업소 ☎ 033-450-5558

숙박

고석정 주변에 한탄리버스파호텔(033-455-1234), 세이펜션(010-8845-4980), 늘푸른펜션(033-455-9009), 하늘마루펜션(033-455-8368) 등의 숙박시설이 많다. 고석정과 직탕폭포 사이의 한여울길 주변에도 자전거탄풍경(010-9023-3399), 디퍼펜션(033-455-7273), 오벨리스크(033-455-3619), 금비펜션(033-455-4400) 등의 펜션이 있다.

맛집

직탕폭포 옆에 자리 잡은 폭포가든(033-455-3546)은 장어구이가 맛있는 집이다. 고석정 관광지에는 고석정황소마을(갈비탕·033-455-9299), 어랑손만(북한식 손만두·033-455-0171), 임꺽정가든(민물매운탕·033-455-8779) 등의 소문난 맛집들이 즐비하다.

가는 길

대중교통 |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노원, 수락, 장암, 의정부 등을 경유하는 경기고속의 철원 동송행 시외버스가 새벽 5시 50분부터 밤 9시 10분 사이에 30~40분 간격으로 출발. 2시간 40분 소요. 지하철 4호선 수유역에서도 동송행 버스가 하루 21회 출발.

질감과 색감은 느껴보기 어렵다. 게다가 깡마른 몸매, 다소 날카로워 보이는 눈빛 등은 부처라기보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더 닮았다.

도피안사에서 약 3킬로미터쯤 떨어진 철원읍 관전리 87번 국도변에는 옛 노동당사 건물 잔해가 덩그러니 서 있다. 광복 직후부터 6·25전쟁 때까지 조선노동당의 철원 군당(郡黨)이 자리했던 러시아식 건물이다. 건립 당시 조선노동당은 1개 리(里)당 쌀 2백 가마씩을 성금으로 거뒀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건물 내벽은 거의 다 무너져 내렸고, 6·25전쟁 당시 쏟아진 포탄과 총탄 자국으로 성한 데가 별로 없다. 게다가 외벽마저 칙칙해서 흉가처럼 스산한 느낌을 준다. 전쟁의 상흔으로 얼룩진 이 잔해를 보노라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분단의 아픔이 새삼 가슴을 무겁게 억누른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사랑 잃은 동물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유기동물 입양,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야

버려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유기(遺棄)동물’이라고 한다. 한때는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애완동물들이지만 싫증이 나서, 병에 걸려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긴 동물들은 거리를 떠돌다 차량 등의 예찰, 신고를 통해 시군구청, 동물보호단체 등에 의해 포획돼 동물보호소에 맡겨진다.

보호소에 맡겨진 유기동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공고하는데, 공고 후 10일 이내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입양 대상이 되지만 입양되지 않은 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안락사 처리한다.

200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유기동물 수는 8만2천6백68마리. 2002년의 1만5천9백58마리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호시설이나 단체를 통해 조사된 행정적인 집계일 뿐, 신고되지 않고 거리를 떠도는 동물까지 더하면 1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소의 유기동물 대부분이 안락사 처리된다는 세간의 오해도 있었다. 2006년까지만 해도 매년 보호소의 유기동물 중 50퍼센트가량이 안락사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안락사 비율이 25.5퍼센트로 크게 줄었다. 인터넷 카페나 이효리, 최강희 씨 등 인기 스타들이 앞장서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벌이는 등 다방면의 홍보 덕에 보호소를 통해 입양되는 유기동물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G

글 · 이윤진 기자

동아DB

유기동물이 보호시설에 머물러 있는 기간은 평균 25일이다. 수용능력의 한계로 일정 기간 이상 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입양되지 못한 유기동물은 어쩔 수 없이 안락사 처리된다.

입양 전 필요한 마음의 준비

1.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와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가.
2.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산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 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서 있나.
3. 모든 가족과 합의는 되어 있나.
4.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은?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돼 있나. 아플 때 제때 치료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인가.
5. 입양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나.
6.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나.

유기동물 입양 절차

1.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한다.
2.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3. 보호시설 방문 후 입양계약서를 작성한다.
4.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개집, 개목걸이 등 필요한 물품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5.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동반하지 않으면 입양이 불가능하다.
6. 입양비는 무료지만 중성화수술 비용 등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도 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animal.go.kr

행복의 선물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인사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권 감수성 영화로 말하다

일러스트 · 이우정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지음 / 창비 펴냄 · 1만3천8백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정의한다. 이 단어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인권 감수성'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차별받는' 상황을 이해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불편을 느낀다는 의미다.

살면서 언제든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 무감각할 때가 많으므로 인권 감수성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김두식(43)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펴낸 〈불편해도 괜찮아〉를 읽다 보면 물과 공기처럼 지나쳐왔던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던 인권 감수성이 되살아난다.

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획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 가깝고도 먼 인권을 쉽게 알리기 위해 그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무려 80여 편의 영상물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로 영화를 예로 들어 흥미롭게 읽힌다. 동물만 보고도 질겁하는 주인공이 적성과는 상관없이 수의학과를 지망한다는 내용의 한국영화 〈발레 교습소〉(2004)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어른들이 정한 제약 속에서 개성을 표현할 자유조차 잃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저자의 방식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영화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할리우드 영화 〈300〉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3백명의 전사들이 함께 하는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 그런데 여기서 스파르타의 배신자로 등장하는 인물, 에피알테스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하게 장애인으로 그려진다. 한마디로 악한 자를 장애인으로 둔갑시켜 장애가 갖고 있는 비인권적인 의미, 추하고 더럽고 약한 모습을 부각시킨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메시지들을 '인권감수성'을 통해 느끼며 숨은 그림 찾듯 인권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도 독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 그 역시 성장 배경을 벗어날 수 없는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차별받는 사람들의 처지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사회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주제인 성적 소수자에 대한 권리 보장,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권 문제 전반을 고찰해보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높은 인권 수준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자는 무엇보다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이번 기회에 인권 감수성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권 이야기를 전하고픈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G

글 · 오해정(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일이 바빠서…

글과 그림·최영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지 마십시오.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는 여행입니다. – 더글러스 대프트(코카콜라 전 회장)

현대미술의 흐름 한곳에서 바라보다

예술의전당 〈월드스타 인 컨템퍼러리 아트〉展

© Parkett Publishers and the artist

앤디 워홀, 루이스 부르조아, 케오르그 바젤리츠, 신디 셔먼, 제프 쿤스, 데미안 허스트, 아이웨이웨이…. 현대미술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타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작품을 모을 수 있었던 데는 세계적인 현대미술 전문지 〈파켓·Parkett〉의 공이 크다.

유럽의 대표적인 현대미술 잡지인 〈파켓〉은 현대 작가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신작을 발표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젊고 유망한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이 작업은 발행 호수가 늘어나면서 현대미술계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을 여럿 탄생시켰다. 그리고 지난해 창간 25주년을 맞이하여 총 1백85명의 아티스트가 작업한 2백여 점의 '파켓 에디션'이 드디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한국의 미술 애호가들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는 일상에서 영감을 만난다'라는 큰 주제 아래 여섯 가지 테마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테마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집'처럼 방이 구분되는데, '작업실에서', '놀이터에서', '야외에서', '옷장에서', '도시에서' 등 소주제별로 전시된 방에서 관람객들은 예술적 감성이 가득한 색다른 일상의 공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회화, 조각, 사진, 도면, 인쇄물, 비디오, DVD 등 매체를 망라한 작품들을 통해 재료와 소재에 한계가 없는 현대미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이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2011년 2월 25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일반 및 대학생 8천원, 초중고생 4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1300 www.sacticket.co.kr

● 가족극 〈할머니의 낡은 창고〉

국립극장이 준비한 '2011 어린이 우수 공연축제' 상연작으로 소박하면서도 호기심과 상상력이 가득한 무대를 만날 수 있다. 할머니의 낡은 창고 속 물건들이 빚어내는 추억 속으로 빠져보자.

일시 2011년 1월 19~23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관람 연령 4세 이상)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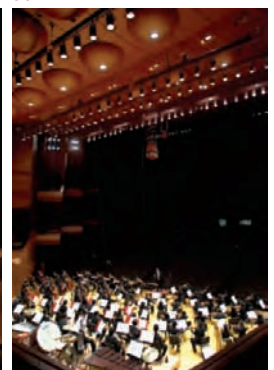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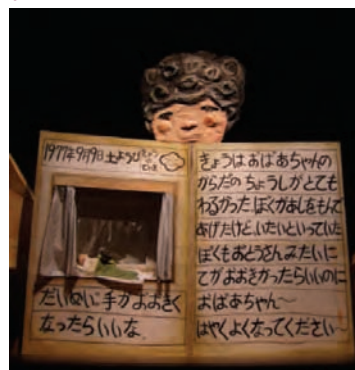
●● 콘서트 〈2010 예술의전당 제야음악회〉

클래식 음악과 제야의 카운트다운, 불꽃놀이, 소망풍선 띄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2010년의 마지막과 2011년의 시작을 함께하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시 12월 31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3층석 3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1300 www.sacticket.co.kr

●

●●

제2회 GREEN DOCUMENTARY
그린다큐 제작지원 공모전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기획력과 제작역량은 충분하지만 제작환경의 문제로 인해 작품성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립제작사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전을 시행합니다.

그린다큐멘터리의 의미

그린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진실의 눈으로 담아내고, 긍정의 대안과 희망의 내일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를 의미함.

지원규모 l 총 상금 3억 5천 만원

1억5천만원 이내(60분물 3부작 이상)
1억원 이내(60분물 2부작 이상)
5천만원 이내(60분물 1부작 이상)

공모분야 l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HD급의 뛰어난 다큐멘터리

공모주제

자유주제(3억원) / 주제 제한없음(예산범위내)
지정주제(5천만원) / '새로운 만남 친환경 생태녹색관광으로 만나는 대한민국'(1편)

공모대상 l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

추진일정 l 2011년 1월 11일 17:00시 도착분에 한함

1차 심사 : 2011년 1월 21일(서류심사)
2차 심사 : 2011년 2월 24일(Pitcing 공개 심사)
중간점검 : 2011년 6월 30일
송출완료 : 2011년 10월 30일
최종보고 : 2011년 11월 30일

접수 및 문의 l 우편 및 방문접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업팀(T. 02-716-7401)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B-1811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cpf.or.kr) 참조

주최 l 방송콘텐츠진흥재단 Broadcasting Contents Promotion Foundation 후원 l

현대홈쇼핑

실내온도
18~20℃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